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曹点煥

國民學校 藝·體能教科 專擔制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Specialty Teacher System for
Art / Athletic Education in Elementary

1992年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教育行政學科

教育行政專攻

洪 淳 惠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曹 点 煥

國民學校 藝·體能教科 專擔制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Specialty Teacher System for
Art / Athletic Education in Elementary

위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2 年 6月 日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教育行政學科

教育行政專攻

洪 淳 惠

洪淳惠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92 年 6 月 日

審査委員長 金 環 培 

審査委員 黃 振 洙 

審査委員 曹 英 煥 

目 次

I. 序 論	1
1. 研究의 必要性 및 目的	1
2. 研究의 內容 및 方法	3
3. 研究의 制限點	6
II. 理論的 背景	7
1. 教科 專擔制의 意義	7
2. 藝·體能 教科 專擔制의 組織 및 運營 形態	11
3. 藝·體能 教科 專擔制의 施行 經過	15
4. 外國의 國民學校 教科 專擔制	18
5. 教科 專擔教師 및 수업시수	22
6. 教科 專擔制와 學級 擔任制의 比較	25
III. 調查結果 및 解析	32
1. 教科 專擔制의 必要性 認識度	32
2. 教科 專擔制 運營의 實態	40
3. 教科 專擔 教師의 養成制度	47
4. 教科 專擔制의 適用範圍	52
5. 教科 專擔制의 기대 效果	55
IV. 要約 및 結論	64
1. 要 約	64

2. 結 論	66
參 考 文 獻	67
英 文 秒 錄	69
附 錄	71

表 目 次

〈表- 1〉	設問紙 調查現況	4
〈表- 2〉	設問紙 構成內容	5
〈表- 3〉	美國의 學級 擔任制와 教科 擔任制의 利用傾向	19
〈表- 4〉	北일리노이주 48個 都市 小學校 分科 擔任制	21
〈表- 5〉	學級數別 配置基準 人員	23
〈表- 6〉	專擔 對象 教科 및 教育課程 時間 配當 基準	24
〈表- 7〉	年次別 授業 시수 輕減計劃	25
〈表- 8〉	高學年 教師의 授業 負擔 輕減	32
〈表- 9〉	教育의 質的 向上을 위한 實施與否	34
〈表-10〉	擔任과 教科 專擔教師間的 갈등	35
〈表-11〉	教科 擔當 教師의 所屬 不分明	37
〈表-12〉	教科 專擔 教師의 生活指導	39
〈表-13〉	教育의 質的 水準 向上의 障礙 要因과 授業 分量	40
〈表-14〉	藝·體能 教科 專擔制의 實施 可能性 與否	42
〈表-15〉	體育科 授業의 自信心	43
〈表-16〉	音樂科 授業의 自信心	45
〈表-17〉	美術科 授業의 自信心	46
〈表-18〉	教科 專擔 教師의 養成制度	48
〈表-19〉	教科 專擔 教師의 資格證制度	49
〈表-20〉	藝·體能 教科의 副 專攻制 導入	51
〈表-21〉	藝·體能 指導 對象 學年	53

〈表 -22〉	指導해야 할 教科의 種類	54
〈表 -23〉	藝·體能 教育課程 配當時間 履行	57
〈表 -24〉	密度 높은 授業의 效果	58
〈表 -25〉	特別實科 施設의 確保	59
〈表 -26〉	藝·體能 教科의 學年間 系列 把握	61
〈表 -27〉	藝·體能 教科의 教材研究 準備 및 活用度	62

圖 目 次

〈圖 - 1〉	學級 擔任制와 教科 擔任制의 比較	9
〈圖 - 2〉	1個 學年 1個 班일때의 學年群(垂直)組織	12
〈圖 - 3〉	1個 學年 2個 班일때의 學年群(垂直·水平混合)組織	13
〈圖 - 4〉	1個 學年 3個 班일때의 學級 群(水平)組織	13
〈圖 - 5〉	1個 學年 4個 班일때의 教科 專擔 教授制의 組織	13
〈圖 - 6〉	1個 學年 5個 班일때의 教科 專擔 教授制의 組織	14
〈圖 - 7〉	1個 學年 6個 班일때의 教科 專擔 教授制의 組織	14

I. 序 論

1. 研究의 必要性 및 目的

1) 研究의 必要性

初等教育은 한 나라의 國民基礎教育에 해당된다. 때문에 모든 나라는 初等教育을 중시하여 初等教育을 義務教育(無償教育)으로 規定하고 있다. 初等學校 어린이의 人格形成의 大部分은 이 期間 동안에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올바른 人格形成에 國民學校 各 教科가 갖는 重要性은 재론할 必要도 없다. 이 점에서 體育, 音樂, 美術과 같은 藝·體能教科는 全人的인 人間形成을 위한 全人教育이라는 점에서 더욱 重要時 되어야 한다.

그러나 國民學校의 現實情은 한 教師가 全 教科를 가르쳐야 하는 現行制度로서는 教師들이 全 教科를 훌륭하게 指導할 수 있으리라는 期待를 갖기 어렵다. 특히 機能에 중점을 두어야하는 藝·體能教科 指導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왜냐하면, 教師中 상당수의 教師는 藝·體能 教科에 대한 知識과 機能의 不足은 물론이고 藝·體能教科를 도외시 하거나 그런 學校教育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學習資料 活用に 있어서도 모든 教科(9個教科)에 걸쳐 準備를 해야 하기 때문에 教師의 負擔이 커 大部分의 경우 學習資料를 갖추지 못한채, 學習指導를 함으로서 密度있고, 質 높은 教授를 하기에 무리한 점이 너무 많았다¹⁾고 하겠다.

註1) 황은기, “國民學校 教育現場에 藝·體能教科 專擔이 學力과 機能力에 미치는 影響” 서울市 現場教育論文(서울教育會, 1988), p.3.

國民學教 教育을 정상화 하고 初等教師들의 專門性을 높여야 한다는 問題로 提起된지 이미 오래되었다. 全國의 11個 教育大學이 4年 제로 昇格된 것도 教師들의 專門性 提高의 必要性에 浮應한 措置의 하나였다.

따라서 한 教師가 1學級을 指導하는 傳統的 教授 組織보다는 教師의 能力에 따른 專擔指導를 통한 制度의 改善이 學校教育의 發展 課題라 할 수 있다.

教科 專擔制는 國民學教 擔任教師의 授業負擔을 경감 시켜주고, 國民學校 教科教育의 質을 向上 시키려는 制度이다. 때문에 國民學校 教育의 質을 높이기 위해서는 藝·體能教科 專擔教師制의 導入이 本格的으로 提起되어야 한다.

本 研究에서는 이와같은 學校教育의 時代的, 社會的 背景을 중시하여, 教師의 教科別 專門性을 높이고자, 4, 5, 6學年の 藝·體能教科만이라도 專擔制로 轉換하여 學生들의 學業成就 向上, 教授 負擔의 輕減, 教育課程 運營의 正常化를 기해야 한다는 必要性에서 本 主題를 研究의 課題로 設定하였다. 이에 대한 研究의 目的은 다음과 같다.

2) 研究의 目的

本 研究의 목적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國民學校 教科 專擔制 實施에 대한 理論的 根據를 考察하고
둘째, 教科 專擔制 運營의 必要性이 무엇인가를 규명하고 이것의 運營 實態를 把握한다.

세제, 教科 專擔制의 適用範圍와 이에 대한 期待效果가 무엇인가를
알아 본다.

2. 研究의 內容 및 方法

本 研究는 研究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文獻研究와 實態調査를
병행하였다. 研究의 內容 및 研究方法은 다음과 같이 設定하였다.

1) 研究의 內容

- 藝·體能教科 專擔制의 理論的 考察
- 教科 專擔制의 意義와 施行經過
- 教科 專擔制와 藝·體能 教科 擔當教師 및 수업시수
- 教科 專擔制와 學級 擔任制에 나타난 長·短點 규명

2) 研究方法

(a) 研究方法은 國民學教 藝·體能教科 專擔制에 대한 研究를 위
하여 參考文獻 研究와 設問調査 研究를 병행하였다.

(b) 設問紙의 調査對象은 서울特別市에 所在하고 있는 9個 教育
廳內 (公立)國民學校 中 1個 教育廳에서 3個校를 무작위로 선정
하였고, 이의 대상교 27個 學教에 勤務하는 教師 500名을 그 調査
對象으로 하였다.

本 研究의 設問資料와 그 調査現況은 <表-1>과 같다.

< 表 -1 >

設問紙 調査 現況

人 的 事 項	性 別		年 齡 別				經 歷 別				學 力 別				計
	男	女	20 5 30	31 5 40	41 5 50	51 以上	1 5 10	11 5 20	21 5 30	31 以上	師範 卒	教大 卒	師範 大卒	其他	
配 付 數	97	403	129	137	172	62	125	192	141	42	67	347	27	59	500
回 收 數	88	370	106	124	168	60	114	166	138	40	62	320	22	54	458
回 收 率	91	92	82	91	98	98	91	87	98	95	93	92	82	92	92

(c) 도구

本 研究에 使用된 設問紙는 一般 教師用으로 製作하여 使用하였다.

(d) 資料處理 2)

資料處理는 使用 가능한 458 枚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各 文 項別로 反應 頻度와 百分率(%)을 算出하였고, 性別, 年齡別, 經歷別 學力別間의 差異를 규명해 내었다. 이를 위하여 분석도구(tool)인 spss 統計 package program을 使用하여 X² 分析으로 反應差의 유의도 를 밝혀 내었다.

(e) 設問紙 內容構成

設問紙의 內容構成은 教科 專擔制의 必要性 5 問項, 運營 實態 5 問項, 教科 專擔教師의 養成制度 5 問項, 適用範圍 2 問項, 期待效果 5 問項等 總 20 問項으로 構成하여 實態를 調査 分析 處理하였다.

註2) Spss 統計 Package Program을 使用한 X² 分析法을 適 用한 것임.

〈表-2〉

設問紙 內容 構成

作成基準	問項番號	問 項 內 容	問項數
教科 專擔制의 必要性	1	○高學年 教師의 授業 負擔 輕減	5
	2	○教育의 質的 向上을 위한 實施 與否	
	3	○擔任과 教科 擔當 教師間의 갈등	
	4	○教科 擔當 教師의 所屬 不分明	
	5	○教科 專擔 教師의 生活指導	
教科 專擔制運營의 實態	6	○教育의 質的 水準 向上의 障礙要因 과 授業 分量	5
	7	○藝·體能 專擔制의 實施 可能性	
	8	○體育科 授業의 自信感	
	9	○音樂科 授業의 自信感	
教科 專擔教師 養成制度	10	○美術科 授業의 自信感	3
	11	○教科 專擔教師의 養成制度	
	12	○教科 專擔教師의 資格證制度	
教科 專擔制의 適用 範圍	13	○藝·體能 教科의 副 專攻制 導入	2
	14	○藝·體能 指度 對象 學年	
教科 專擔制의 期待 效果	15	○指導할 教科目的 種類	5
	16	○藝·體能 教育課程 配當時間 履行	
	17	○密度 높은 授業의 效果	
	18	○特別室과 施設의 確保	
	19	○藝·體能 教科의 學年間 系列把握	
	20	○藝·體能 教科의 教材 研究 準備	

3. 研究의 制限點

- (1) 研究의 對象을 서울特別市 所在 勤務教師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研究의 結果를 一般化하는데 제약이 따른다.
- (2) 使用된 設問紙는 研究者가 임의대로 作成(폐쇄형) 하였으므로 定型화된 設問紙로 볼 수는 없다.
- (3) 設問對象을 公立學校에 勤務하는 教師를 그 對象으로 하였기 때문에 私立學校에 勤務하는 教師는 研究對象에서 除外된 점이다.
- (4) 國民學校 教科 專擔制에 대하여 國內에서 刊行된 文獻이나 資料가 많지않아 理論的 研究에 많은 資料를 活用하지 못한 점이다.

II. 理論的 背景

1. 教科 專擔制의 意義

現行의 教科 專擔制는 教師들이 專攻한 教科를 중심으로 指導하는 方式이 아니라 (現在의 指導로서 專攻 教科가 없음) 學級 擔任들이 그 能力에 따라 일부 教科를 分擔하여 行하는 授業方式을 말한다. 原則的으로 學年別 學習集團을 中心으로 한 教師들의 協同 教授組織이 라는 점에서 그 意義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教科 專擔制란 한 教科 또는 關聯 教科 몇개를 한 教師가 擔當하도록 하는 教授 組織의 한 形態³⁾ 라고 말할 수 있다.

兒童의 입장에서는 學級 擔任制와 比較하여 全部 내지 部分的인 教科別로 教師가 바뀐다는 外形的 差異外에는 學習原理 또는 教育課程의 본질에 새로운 變化가 가해지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教科 專擔制 성립의 基本 要件은 教師의 專門性 수월성을 추구하면서, 兒童들의 學習 效果를 提高한다는 것이 핵심이 될 수 있을 것이다.⁴⁾ 특히 教科 專擔 教授制는 1975年부터 韓國教育開發院에서 示範學校에 適用해 온 制度였다. 이를 效果面에서 보면 實驗集團이 比較集團 보

註 3) 김운태, 「教育心理辭典」, (서울: 배영사, 1965) p.181.

4) 이창한, “國民學校 教科 專擔制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단국대학교 教育大學院, 1990)p.59.

다 藝·體能 教科에 대한 學生들의 學業 成就度에서나 學習態度에서 肯定的인 效果를 보였다고 밝히고 있다.⁵⁾

教科 專擔制는 教師의 專門性과 수월성 教育 效果의 極大化, 教職의 專門性提高 等 하나의 觀念이 되는 制度로 認識되고 있다. 現代의 教育은 高度産業 社會의 急變하는 時代的 狀況에 對應하는 教育의 質的 改善을 위한 方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學校教育 活動에서 中心이 되는 學習指導는 學校教育의 成敗를 決定짓는 要素라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傳統的으로 信奉되어 온 學級擔任制와 새로운 爭點으로 부각 되어지고 있는 教科 專擔制에 대한 長短點들을 教科 專擔制 實施에 대한 教育界의 의지가 분명해져야 할 시점에 있다.⁶⁾

이미 美國, 日本 等지에서 廣範圍하게 適用되고 있는 教科專擔制는 무엇보다도 이 時代的 要請에 浮應되는 것으로서 學習指導의 協力 形態로서의 教育的 意義가 높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教科 專擔制는 教師의 專門性 및 優越性, 教育 效果의 極大化, 教職의 專門性 提高에 基本的 觀念이 되는 점에서 教科 專擔制는 國民學校 教科教育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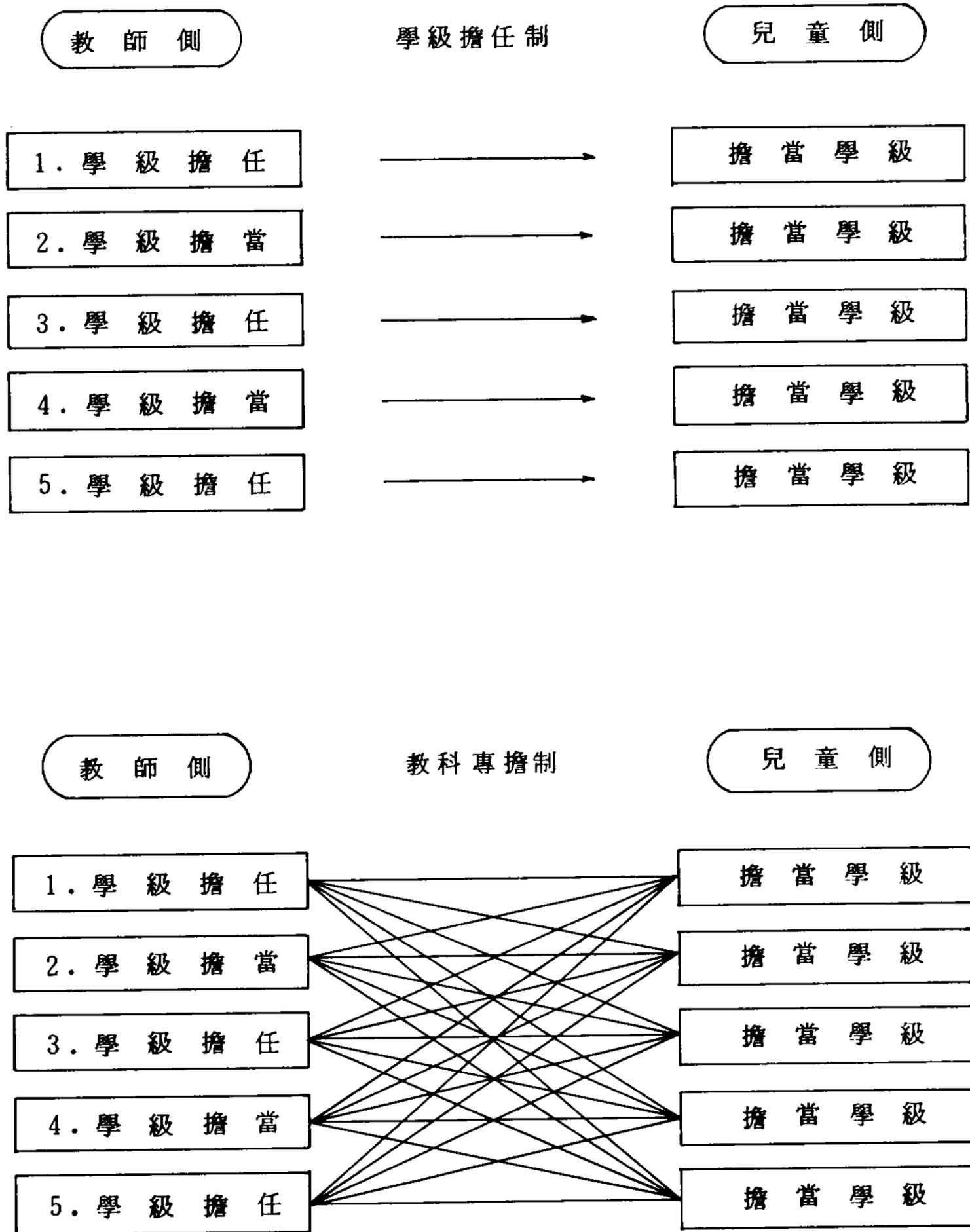
教科 專擔制를 現行 學級 擔任制와 比較해 보면 <圖-1>과 같다.

註 5) 韓國教育開發院, 「教科專擔 教授制의 投入 效果 研究」(研究報告書 第 70 輯, 1978), p.141.

6) 오근진, 「國民學校 效果 擔任制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高麗大 學校 教育大學院 1973), p.11.

<圖 -1 >

學級擔任制와 教科專擔制 比較



資料：전수복, " 국민학교 교과전담교사에 관한 연구 ", 석사학위논문, (단국 대학교 교육대학원, 1990). pp.7-8.

學級 擔任制는 教師와 學生의 關係에 있어서 한 사람의 擔任教師로서, 學級の 全教科를 學習指導한다. 이와는 달리 教科專擔制는 한 教師가 한 教科目으로 여러 學級の 해당 教科目を 맡게 된다. 兒童의 입장에서 보면 學級擔任 外에 여러 教科 擔任 教師의 指導를 받게 된다. 이점은 그 時間마다 바꾸어 들어오는 教科擔任을 만나게 되어 활기있는 學校授業의 잇점도 가져올 수 있다.

이는 또한, 特定教科에 대해서 가장 專門적이고 우수한 教師의 授業을 받게 됨으로써, 學習效果가 가일층 증대된다. 말하자면 教科專擔制는 開放的 教授體制인데 비해 學級擔任制는 閉鎖的 教授體制라고 할 수 있다.

教科專擔制가 教師 學生 모두에게 選好되는 制度로 判斷되면 相互間的 教師와 兒童間的 유기적인 協力 關係를 期待할 수 있다. 아울러 教科專擔制 理論中 무시할 수 없는 성질 중의 하나는 學級擔任制 보다는 教科專擔制는 教科를 보다 重要時하고 있어서 現行의 學文 中心 教育課程에 충실할 수 있는 制度라고 할 수 있다.

藝·體能 教科專擔制 運營의 意義를 보면 다음과 같이 提示할 수 있다.

첫째, 初等教育에서 한 教師가 전 教科를 指導하는 現行 指導形態로는 教科의 本질과 特性을 살리는 指導가 不可能 하므로 教師의 能力에 따른 專門적인 教科專擔方式이 學習의 質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教師 個人的 특기와 能力, 專門性에 따른 教科專擔이 可能해진다.

세째, 成長特性으로 보아 민감한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 指導를 한 사람의 擔任教科 보다는 藝·體能教科 專擔教師의 多樣하고 專門的인 指導를 통하여 全人的이고, 폭 넓은 人格形成에 도움이 될 것이다.

2. 藝·體能 教科 專擔制의 組織 및 運營 形態

教科 專擔制 教科는 學校 教育에서 소홀이 取扱되거나, 指導上에 어려움을 겪는 體育, 音樂, 美術教科에 한정되고, 對象 學年은 國民學校 上級學年인 4, 5, 6學年에 한정하는 것이 좋다. 이의 專擔 教師 배정은 教師의 希望에 따르는 것이 무난할 것이나 어느 한 教科로 편중될 경우에는 적의 調整해야 할 것이다.

教科運營은 3人的 教師가 1個의 군을 이루어 體育, 音樂, 美術, 教科 中 한 科目을 專擔하게 하고 自信이 많은 教科를 3個의 學級을 擔當指導한다. 이러한 組織은 可能的 同學年끼리 하는 것이 좋으나, 學校 規模에 따라 여러 形態로 運營을 할 수 있다. 그런데 體育, 音樂, 美術教科의 주당 시수가 각각 3時間, 2時間, 2時間으로 規定되어 있어서, 體育 教科를 專擔하는 教師의 指導時間이 相對적으로 많을 수 있고, 相互 交換 授業에 어려움이 많다.

물론 指導 負擔이 큰 體育 教科專擔을 기피하는 傾向이 없지않다. 이러한 경우에는 指導 負擔이 比較的 적은 低學年 學級 擔任 教師의 支援을 받거나, 증치교사를 活用을 할 수도 있다. 支援을 받을 경우에는 支援 教師의 能力에 맞는 단원을 選擇하도록 하며 나머지 한 時間은 3個 學級을 3人的 教師가 合同 體育으로 運營할 수도

있다. 그러나 單元의 內容에 따라서는 合同 體育으로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一律的으로 適用하는 것은 合理的이라 할 수 없다. 그러나 合同 體育으로 할 수 있는 단원을 學期初에 選定하여 運營 할 수 있을 것이다.

(1) 組織方法

組織方法은 學年 群과 學級 群 그리고 學年群과 學級 群의 混合 組織方法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a) 學年 群 組織 (垂直組織)

이의 組織은 1個 學年이 1個班으로 編成되어 있는 小規模 學校에서는 3個 學年이 하나의 運營集團이 되는 學年 群 <圖-2>으로 組織한다.

<圖-2> 1個學年 1個班의 學年 群 (垂直) 組織

學 年	學 級 數
4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auto; width: fit-content;"> 1 班 1 班 1 班 </div>
5	
6	

(b) 學級 群 組織 (水平組織)

以外 組織은 1個學年이 2個 班으로 編成되어 있거나 또는 3個 배수 반으로 學級群을 編成 <圖-3>와 <圖-4>와 같다.

<圖-3> 1個學年 2個班일때의 學年群(垂直·水平混合)組織

學年	學級數
4	1班 2班
5	1班 2班
6	1班 2班

<圖-4> 1個學年 3個班일때의 學級群(水平)組織

學年	學級數
4	1班 2班 3班
5	1班 2班 3班
6	1班 2班 3班

(c) 學年群, 學級群 組織(垂直·水平混合組織)

이의 組織은 1個學年이 4個班, 5個班, 6個班 等 일때 <圖-5>

<圖-6>, <圖-7>과 같이 學級群·學年群을 混合組織 한다.

<圖-5> 1個學年 4個班일때의 教科專擔教授制 組織

學年	學級數
4	1班 2班 3班 4班
5	1班 2班 3班 4班
6	1班 2班 3班 4班

〈圖 -6〉 1個學年 5個班일때의 教科 專擔 教授制 組織

學 年	學 級 數	
4	1班 2班 3班	4班 5班
5	1班 2班 3班	4班 5班
6	1班 2班 3班	4班 5班

〈圖 -7〉 1個學年 6個班일때의 教科 專擔 教授制 組織

學 年	學 級 數	
4	1班 2班 3班	4班 5班 6班
5	1班 2班 3班	4班 5班 6班
6	1班 2班 3班	4班 5班 6班

以上の 模型을 基本 模型으로 한다면 學級數에 關係없이 얼마든지 混合 適用하는 效率的인 教科 專擔制 組織을 玆해갈 수 있다.

(2) 體育, 音樂, 美術 教科 專擔制의 運營

(a) 學年群 (垂直) 運營

美術은 각자 專擔 指導하고, 體育時間은 단원이 다른 1時間을 音樂, 美術教師와 協同 授業을 한다.

(b) 學級群 (水平) 運營

同一 學年內에서 3人의 教師가 體育, 音樂, 美術 教科를 專擔 指導한다. 學年群과 같이 體育時間 1時間은 協同 授業을 한다.

(c) 學年群 · 學級群 (垂直 · 水平 混合) 運營

4, 5, 6 學年을 對象으로 學年群과 學級群의 運營方法을 混合 適用한다.

3. 藝·體能教科 專擔制의 施行 經過

教科專擔制는 “韓國에 있어서 처음으로 1960年初 이화여대 사범대학 附屬 國民學校에서 體育, 音樂, 美術, 科學 等の 4教科에 한하여 實施한 바 있는데 一次的으로 私立國民學校에서 實驗的으로 實施한 한 例이다.⁷⁾

教科專擔教授制는 1975년부터 韓國教育開發院이 示範學校에 適用한 바 있다. 이것의 效果面에서 보면 教科 擔任制는 實驗集團이 比較 集團보다 藝·體能教科에 대한 學生들의 學業 成就도와 學習態度에서 좋은 效果를 보였다고 밝히고 있다.⁸⁾

1960年代 後半과 1970年代 初半에는 대구 칠성국교, 全南 순천성동국교, 仁川 신흥국교, 全北 全州國校, 高嶺 무장국교, 서울 갈현국교, 대구 教育大學 附屬 國校에서 教科 專擔制를 試驗的으로 運營하였다.⁹⁾ 또한 1971 ~ 1974年까지의 4年間 誠信女子大學 私範大學 附屬 國民學校에서는 1 ~ 2學年の 藝·體能 教科와 4 ~ 6學年の 全教科에 대해 專擔制를 試驗, 適用한 바 있다.¹⁰⁾

註 7) 김종서, “國民學校 專擔制에서 解決되어야 할 問題點,” 교재교구, 1970, p.8. 1978.

8) 韓國教育開發院, “教科專擔教授制의 投入效果研究”, 研究報告書 第70集 1978, p.18.

9) 오근진, “國民學校 教科專擔制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고대교육대학원, 1973, p.37.

10) 誠信女大 私大附屬國校, “教科擔任制와 各 教科別 研究”, 1974年 研究報告書(第4次年度, 1974).

1972년에는 韓國 教育開發院에서 國民學校를 對象으로 4차례의 小規模 示範과 3차례의 綜合示範을 하였는데, 協同 教授 體制로 體育 音樂, 美術을 1教科씩 專擔하여 教授하는 教科 專擔制가 運營되었다.¹¹⁾ 그리고 1978년에 다시 경기도 광주군에 所在하는 4個 國民學校, 이천군에 所在하는 2個 國民學校를 對象으로 藝·體能 教科에 대해서 教科 專擔制의 投入 效果에 대한 實驗을 하였다.¹²⁾

1978년에는 서울 영동국민학교가 文敎部 指定 研究學校로서 研究 (國民學校 藝·體能 教科 專擔制 適用에 관한 研究)를 遂行하였고¹³⁾ 그 이듬해인 1979년에는 (國民學校 藝·體能 教科 專擔制 研究學校 運營計劃) 서울 영동국민학교를 비롯하여, 10個 市道에 所在하는 10個 國民學校에 걸쳐 다시 그 實施를 擴大 實驗·適用을 하였다.¹⁴⁾

調査된 바에 의하면 제주도를 除外한 10個 市·道, 37個 市·郡 教育廳에서 總 134個校가 教科 專擔制를 實施한 것으로 나타났다.¹⁵⁾ 現在에도 일부 教科에 대해 教科 專擔制를 實施中에 있는 學校가 있다.

註 11) 김재복외 3人, “教科專擔教授制의 投入效果研究”, 韓國教育開發院, 1978, p.6.

12) 上揭書, 1978.

13) 서울 영동국민학교, “國民學校 藝·體能 教科 專擔制 適用에 관한 研究”, 1979.

14) 文敎部 指定 國民學校 藝·體能教科 專擔制 研究學校(서울 영동국교 외 9個校), “國民學校 藝·體能教科 專擔制 適用에 관한 研究”, 1979.

15) 신윤철, “教育大學 制度의 改善에 관한 研究,” 「教育評論」 11月號 1973, p.136.

한편, 文敎部에서는 1985.12.2. 國民學校 敎科 專擔制의 段階的 接近方案 探索을 提示 하였으며, 1986年 敎育計劃 審議會에서 段階的인 擴大方案을 發表하였다.¹⁶⁾ 이제 그 重要性을 점차 認識해 가는 過程에 있다.

그 以後 敎育部는 1990年 前半期 獎學協議 結果 國民學校 敎師의 授業이 過多하여, 敎科 專擔制 擴大 實施를 建議하였다. 國民學校 敎師의 授業 時수가 過多해 이에 대한 制度的 補完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敎育部가 敎員의 士氣 진작과 學校敎育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90年 4月부터 5月末에 걸쳐 대구, 광주 敎育委等 9個 敎委 前半期 獎學協議會에서 國民學校 敎師의 適當授業 時間이 中等보다 훨씬 많은 24~32時間에 달해 敎科研究 및 生活指導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高學年 擔任敎師 일수록 授業負擔 時수가 높아 이를 根本的으로 解決해 나갈 수 있는 改善方案이 시급한 것으로 提起되었다. 이에따라 일선 敎師들은 4學年以上의 高學年들을 對象으로 藝·體能 및 科學 敎科의 專擔制를 擴大 實施해 줄 것을 建議한 바 있다.

그 以後 敎育部는 '92年부터 5個年에 걸쳐 國民學校 3, 4, 5, 6學年에 한해 體育, 音樂, 美術敎科 專擔制를 施行하기로 決定하여, 關係 機關과의 協議를 거쳐 '92年에 敎育法 施行令을 改正하고 5個年동안 年次的으로 總 12,733名에 이르는 敎員을 採用, 任用할 計劃

註 16) 박태우, “最適學習條件 模型中心의 國民學校 敎科專擔制 運營에 관한 研究”, 청주敎育대학, 「論文集」, 第 24集, 1987,p.2.

중에 있다. 이에 따라 國民學校 教員 定員은 教員 增員이 끝난 '96년에 現在의 137,647名에서 150,380名에 이르게 될 展望이다.

教育部는 이를 위해 '96년부터 每年 1,246億원의 追加 豫算을 投入하게 되고, 藝·體能 教科 專擔制에 必要한 教員을 確保하기 위하여 농어촌 小規模 學校 統·廢合으로 생기는 剩餘教師를 活用하고, 初等教員 養成 教育에서 藝·體能 教科 副 專攻制를 導入하는 한편 藝·體能 專擔 教員의 研修를 強化할 計劃中에 있다. 아울러 初等教員 資格證 소지자간으로 不足한 人力을 確保하기 위하여 中等教師 資格證 소지자 가운데 體育, 音樂, 美術教科 專攻者를 선발하여 소정의 보수교육을 수료케 한후, 國民학교 藝·體能 專擔教師로 임용하는 方案도 檢討하고 있다.

4. 外國의 國民學校 教科 專擔制

國民學校 教科 專擔制의 實施는 이미 外國에서 상당한 정도까지 進전되고 있으며, 實效도 거두고 있다.

“美國 뉴우요크에서 1900年 처음으로 教科 專擔制가 採用되었는데 1913年에 大都市 教育長 會議에서 813名 中 416名의 동의가 있었다¹⁷⁾고 報告되고 있다.

그밖의 國家에서도 점차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適用國家가

註17) 佐藤慶, 「教科專擔制, けす子の小學校經營 革新」, (東京: 明治圖書, 1966) 를 黃銀起, 前揭論文, p.8에서 再引用.

늘어나는 趨勢이다.

“國民學校 教科 專擔制를 최초로 適用한 美國은 ENA 調査에 의하면 <表-3> 1955 年度에 完全 教科 專擔制는 66 %였으나, 1960 年度에 55 %, 1965 年度에는 34 %로 大幅 減少되었다. 部分的으로는 1955 年度에 36 %, 1965 年度에 49 %로 各各 增加된 比率을 나타내기도 하였다.¹⁸⁾

完全 教科 專擔制를 包含시킨 美國의 教科 專擔制는 1955 年度에 20 %, 1960 年度에 39 %, 1965 年度에 이르러서는 54 %로 동년 學級擔任制의 34 %에 비하여 顯격한 差異의 우세를 보여주고 있다.

<表-4> 1955 년부터 1966 년까지의 美國의 學級擔任制와 教科 專擔制를 택한 경우의 例이다.

<表-3> 美國의 學級 擔任制와 教科 擔任制의 利用 傾向

年 度	學校規模	完全教科專擔制	一部學級擔任制 및 一部教科專擔制	完全學級擔任制
1955 ~ 1956	大規模	61 %	30 %	1 %
	中規模	67 %	24 %	1 %
	小規模	65 %	13 %	2 %
	計	66 %	20 %	2 %
1960 ~ 1961	大規模	54 %	40 %	1 %
	中規模	60 %	37 %	2 %
	小規模	51 %	33 %	3 %
	計	55 %	36 %	3 %
1965 ~ 1966	大規模	28 %	51 %	4 %
	中規模	37 %	56 %	3 %
	小規模	32 %	40 %	4 %
	計	34 %	49 %	4 %

資料：홍웅선, 새 教育課程의 理論的 基저 (서울:배영사, 1971), p.197.

註 18) 이신복, “教科擔任制에 대한 研究”, 「研究報告」第 1 輯 (서울特別市 教育 研究院, 1969), p.102.

日本에서 國民學校 教科 專擔制 導入은 “ 1960年이다. 그 동기는 教科 專擔制가 教員의 負擔을 輕減시키고, 兒童의 學力을 向上시키는 等 學級經營上의 必要性 때문이었다. 그후 學級擔任制로부터 教科 專擔制의 이행이 比較的 용이하다는 理由로 보급되는 속도는 빨라졌다.¹⁹⁾

그 한 例로서 日本의 全國 教育研究 聯盟이 調査한 바에 의하면, “ 1979年 現在 國民學校 教科 專擔制를 採擇하고 있는 學校가 14.4%, 教科 專擔制 實施를 準備하고 있는 學校가 5.2%, 實施하려고 考慮하고 있는 學校가 64.0%이며, 생각지 않고 있는 學校가 7.2%로 나타나 있다.”²⁰⁾

日本은 1964年부터 이에 대한 研究가 시작되었고, 現在까지 그 學校의 數는 도합 167校에 달하고 있다. 이는 상당수의 研究學校(자발적 연구학교)를 包含하여 문교성 指定, 부지정, 현지정, 시지정, 教育研究所, 實驗校, 研究所 協力校 등의 研究 指定學校들로 大部分 1~3年의 단기연구 또는 그 以上の 長期研究를 하고 있다. 위 <表-3>에서 보면 “ 國民學校 教科 專擔制가 本格的으로 始作된 年度는 1967, 1968年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부터라 할 수 있다.”²¹⁾

註19) 松村謙, 「教頭 教務主任 等 研修事典」, (日本 東京: 文教書院, 1970), p.135.

20) 金子孫市 下村哲水, 「教育의 現代化」, (日本 東京: 學陽書房, 1972) p.71.

21) 「上掲書, pp.365 ~ 374.

美國의 北 일리노이주 48個 都市 小學校 分科 擔任制 現況은 <表-4>과 같다.

<表-4> 北일리노이주 48個 都市 小學校 分科擔任制('61~'62)²²⁾

學 年	教 科								
	1	2	3	4	5	6	7	8	備 考
國 語			1	6	12	26	36	37	
算 數			1	7	13	23	43	43	
社 會				6	14	24	24	18	
實 科			2	5	7	8	13	11	
音 樂	10	12	14	21	25	35	35	35	
體 育	10	11	21	14	17	21	28	27	
美 術	6	7	8	15	18	28	29	33	
國 史				1	4	9	30	25	

- ① 위 表는 佐藤慶, 前掲書 資料의 21個 教科中 8個 教科 資料만 선정 한 것임.
- ② 이 表에서 볼때 表現教科와 技術教科 外는 4學年 以上이 分科 專擔制를 採擇하고 있음을 나타냈고, 教科擔任 適用은 4學年 以上이 해당됨을 알 수 있다.

註 22) 黃銀起, 「前掲論文」, pp. 10 ~ 11.

5. 教科 專擔 教師 및 수업시수²³⁾

1) 教科 專擔 教師

教育部는 “17學級을 超過하는 學校에서는 6學級까지 增加할 때마다 教師 1人씩을 증치할 수 있다는 教育法 施行令 第37條 第2項을 “國民學校에서 는 學級擔任外에 6學級마다 教師 1人씩을 증치할 수 있다”로 改正하여 藝·體能 教科 專擔制 施行에 必要한 教員 確保의 根據를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教育部는 '92 教育法 施行令을 改正하고 5個年동안 年次的으로 總 12,733 名의 教員을 採用, 任用할 計劃이며, 이에 따라 國民學校 教員 定員은 教員 增員이 끝난 '96 年부터 現在의 137,647 名에서 150,380 名에 이르게 될 展望이며, 이를 위해 教育部는 '96 年부터 1,246 億원의 추가 豫算을 投入하게 된다.

또한 教育部는 藝·體能 教科 專擔制에 必要한 教員을 確保하기 위하여 농어촌 小規模 學校 統·廢合에서 생기는 剩餘教師를 活用하고, 初等教員 養成 機關에서 藝·體能 教科 副 專攻制를 導入하는 한편 藝·體能 專擔 教員의 研修를 強化할 計劃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初等教員 資格證 소지자만으로 부족한 人力을 確保하기 위하여, 中等學校 教師 資格證 소지자 가운데 體育, 音樂, 美術教科 專攻者를 선발하여 소정의 研修教育을 수료케 한 후 國民學校 藝·體能 專擔教師로 任用하는 方案도 檢討하고 있는 중이다.

註 23) '92, 教育部「報道資料」.

(1) 教科 專擔教師 선발 방안

- ① 教科 專擔教師 希望者 및 적임자를 우선 선발·배치한다.
- ② 新規 任用 豫定教師를 教育大學의 심화 過程 이수 教科에 따라 해당 教科 專擔教師로 선발·활용한다('92年 新規採用 豫定 人員 3,932名)
- ③ 現職 教師中 專擔教科의 심화 過程 이수자를 선발·활용한다.
- ④ 學校 實情에 適合한 方案과 講究·自律的·彈力的으로 運營하도록 한다.

(2) 教科 專擔 教師 配置基準

관보 第 12060 號(1992.3.6)의 資料에 의한 주요 골자를 보면, 國民學校에 體育, 音樂, 美術教科에 대한 專擔教師를 두도록 하고, 그 選定 基準은 學校別로 4學年 以上, 每 4學級마다 1人씩으로 하되, 學校別 配置基準은 教育部 長官이 정하도록 되어있다.(令 第 37條 第 2項). 學級數別 配置基準을 보면 <表-5>와 같다.

<表-5> 學級數別 配置基準 人員

區分 學級數別	現 行 (증치교사)	改 正 時 (教科專擔 教 師)	區分 學級數別	現 行 (증치교사)	改 正 時 (教科專擔 教 師)
6 學級未滿	—	—	48 ~ 53	6	8
6 ~ 11	—	1	54 ~ 59	7	9
12 ~ 17	—	2	60 ~ 65	8	10
18 ~ 23	1	3	66 ~ 71	9	11
24 ~ 29	2	4	72 ~ 77	10	12
30 ~ 35	3	5	78 ~ 83	11	13
36 ~ 41	4	6	84 ~ 89	12	14
42 ~ 47	5	7	90	13	15

(3) 현직 教師의 研修擔當機關

韓國敎員大學校 敎員研修院, 教育大 및 각 市·道 敎員研修院에서 擔當하며, 人員數와 선발 基準은 각 市·道別로 決定하고 있다.

2) 專擔 教師의 授業時數

敎科 專擔敎師의 擔當敎科 및 授業時數 配定은 1 專擔 敎師當 1 專擔 敎科配定을 原則으로하며, 擔當 授業時數가 基準授業時數에 現저히 未達되는 경우에는 他 敎科를 支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兒童과는 人間關係를 근간으로 하여, 一部 敎科에 專擔敎師를 두어 敎科 敎育의 質的向上과 高學年 擔任敎師의 授業負擔을 輕감시키고자 하는 敎育部의 計劃에 따라, 對象敎科 및 敎育課程 配當 基準은 <表 - 6>과 같이 定하고 있다.

<表 - 6> 專擔對象 敎科 및 敎育課程 時間 配當基準

교과	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계
專 體 育	(3)	3	3	3	9(3)
擔 音 樂	(2)	2	2	2	6(2)
對 美 術	(2)	2	2	2	6(2)
象 自 然	(3)	4	4	4	12(3)
敎 實 科		2	2	2	6(·)
科 小 計	(10)	13	13	13	39(10)
一般敎科其他	(18)	17	19	19	51(48)
計	(28)	30	32	32	90(28)

(註) * 時間數는 現 敎育課程上 敎科別, 學年別 主當 授業時隨임.

* ()안은 3學年 主當 授業時數로서 全體數에 포함되지 아니함.

高學年 擔任教師 경감계획은 제 7 차 經濟社會發展 5 個年 計劃期間 ('92 ~ '96) 중 年차적으로 擴大 實施할 計劃에 따라, 國民學校 教師 1人 當 平均 週當 授業時數를 現 28.5 時數에서 25 時數로 경감될 計劃이며, 具體的인 경감계획은 < 表 - 7 > 에서와 같다.

< 表 - 7 > 年差別 授業時數 경감계획

學 年	現時數	年 差 別 輕 減 時 數						'96 時數
		'92 年	'93 年	'94 年	'95 年	'96 年	計	
1	24	-	-	-	-	-	-	24
2	25	-	-	-	-	-	-	25
3	28	-	1	1	-	-	2	26
4	30	1	1	1	1	1	5	25
5	32	3	1	1	1	1	7	25
6	32	3	1	1	1	1	7	25
	平均 28.5	7	4	4	3	3	21	平均 25

※ 教科專擔教師 週當 21 時間 擔當基準임.

6. 教科 專擔制와 學級 擔任制의 比較

教員組織 理論으로서의 學級 擔任制와 教科 專擔制는 뚜렷이 양립되고 있으나, 國民學校에 있어서 教科 專擔制를 基盤으로 成立되고 논의 되어야 하는 特殊性을 갖는다. 그 理由는 國民學校에 學級이라는 組織單位를 파괴 무시하지 않는한, 教科專擔制도 學級 擔任制의 基本形態만은 維持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本質적으로 兩論에는 各期の 機能과 함께 理論과 實際上的 長短點을 內抱하게 된다.

問題는 現 時代가 學級 擔任制의 長點보다는 教科 擔任制의 長點을 要求하기 때문에 國民學校 教科 專擔制가 대두되고, 研究 實驗된다고 生覺된다.

國民學校에서 教科 專擔制가 대두되게 된 原因은 時代的 變遷과 함께 學級 擔任制에 대한 價値判斷基準이 變遷하였기 때문이다.

즉 生活중심의 學級 擔任制보다는 知識중심의 教科 專擔制를 時代가 要求하게끔 된 것이다. 그러나 아직 時代的 要求는 教育的 견지를 完全히 抑壓하고 있지는 않다.

國民學校에서 學級 擔任制를 完全히 排除하기에는 國民學校 教育的 本質과 特殊性이라는 견지가 강하게 支配되고 있다.

그러나 兩 理論의 具體的 比較研究는 繼續해서 必要한 教育的 課題의 一部이다. 나아가 이러한 比較研究의 結果는 兩 理論의 長短點 比較에서 시작되고 歸結되어 진다고 生覺한다.

1) 學級 擔任制의 長點

(1) 學級 經營面

擔當學級을 擔任의 創意에 따라 特色있게 運營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責任있는 學級經營을 이룩할 수 있다. 學級經營의 一元化 내지 體系化를 기할 수 있으며, 教室管理의 徹底를 기하고, 學級行政과 學級經營을 일사분란하게 推進할 수 있다.²⁵⁾

25) 오근진, 「전계논문」, pp.37 ~ 43.

(2) 兒童指導面

여러 教科와 關聯指導가 可能하며, 유아기 學習態度 確立에 適當하고, 全人教育에 유리한 指導를 할 수 있으며, 各 教科의 均衡的 指導, 基礎教育, 個別教育 큰 單位時間利用, 橫的인 學習指導 등의 바람직하며, 責任있는 學習指導를 이룩할 수 있다.

특히 兒童의 實態(學習機能 行動 心理學)와 兒童의 個性, 適性(특기, 知能, 性格, 欲求, 意味 등) 把握하기 용이하며, 情緒的인 學習분위기와 兒童, 素質, 機能에 부합된 授業을 展開할 수 있는 生活指導의 장점이 있으며, 教育의 統一性, 繼續性을 기할 수 있다.

아울러 教育方法에 따른 混難을 防止할 수 있고, 兒童, 人性, 兒童 協同心 배양, 兒童 教師의 소속감, 문제아 선도, 학습 부진아 구제, 綜合的 學力伸張 安全教育 등 效果를 거양할 수 있다.

그밖의 學習에 있어 주의집중도가 높고, 全 教科의 教育過程 핵심을 把握할 수 있으며, 한 兒童의 全 教科에 대한 實力測定이 용이하다.

(3) 教師 活動面

擔任의 教育방침대로 兒童指導가 可能하며, 兒童教師 相好間 信賴感이 增大하며, 兒童 통솔에 편리하고 教師의 다양성있는 研究力을 연마할 수 있다.

2) 學級 擔任制의 短點

(1) 學級 經營面

學級 왕국화의 경향, 즉 學級の 閉鎖性의 우려가 있고, 教師의 能

力差로 인하여 學級間 質的 差異가 發生하며, 이로 因한 學級差의 심화가 우려된다.

(2) 兒童指導面

各 教科의 專門性이 缺如되어 教科의 特色을 살려 授業하기가 困難하여, 兒童의 興味低下, 지루한 학습 분위기, 일제 授業의 劃一化, 特定 教科의 편중 指導 및 擔任이 興味없는 科目은 소홀히 취급될 가능성이 있으며, 여러 教科에 걸쳐 充實한 授業을 期待하기가 困難하다.

특히 兒童 특기 신장에 無力하여 素質開發 時期를 喪失할 수 있으며, 人格 形成에 擔任의 影響力이 심대하여 人格面에서 편파되기 쉽고, 教師指導 密度에 따른 兒童 學力 成就度의 隔差가 累積되며, 兒童의 진취성이 缺如될 우려가 있다.

아울러 擔任의 全體的인 嚮포가 學級 왕궁에서 자행될 수 있고, 편애에 의한 一部 兒童에게 熱等感을 줄 可能性이 있다.

그밖에 學習 能率의 정체, 實驗 實習의 소홀, 같은 교사만 대하는 實證(권태감), 擔任, 일인의 教育的 범주에 아동정체, 兒童들의 무비판적으로 擔任추종, 擔任 教師외의 無關心과 擔任 부재시 事故 豫防에 難點이 있다.

(3) 教師 活動面

學校 雜務를 包含한 事務量과 教師 研究 負擔이 過多하여 徹底한 教材 研究가 부족하고 教職 專門性의 소홀로 比 專門性을 發揮하게 된다.

教師의 興味와 전공에 맞는 教科選擇이 않되고, 맨손수업이 우려된다.

아울러 教師間 比較意識으로 인한 不作用이 可能하며, 변하지 않는 教授法으로 일과하는 授業이 되기 쉽다. 教師의 能力消耗가 크며, 兒童을 대하는 範圍가 좁다. 또한 學父母에 대한 좋지못한 期待를 조장하는 폐단이 있다.

3) 教科 專擔制의 長點

(1) 學級 經營面

學級 擔任制의 高질적 경향인 學級 왕국화를 타파하고, 學級 고립주의와 學級差를 시정하여 學年經營組織을 強化한다. 이에 따라 經營體制의 現代化 내지 合理化를 이룩할 수 있으며, 職員組織의 制度化 또는 體系化로 專門性的 發揮가 可能하다. 그리고 學教施設 設備의 充分한 活用과 學級 相互間의 競爭을 完化할 수 있다.²⁶⁾

(2) 兒童 指導面

各 教科가 深化되고 핵심적인 學習指導를 할 수 있으며, 授業密度를 向上시키고, 나아가 全般的인 學習能率을 높이며, 教育課程의 정상화를 期하며, 兒童實力 向上, 兒童 學習 意欲, 各 教科의 平均學習 目標의 達成, 教授 內容의 質的 向上, 技術 教育의 發達 등을 圖謀할 수 있다. 또 兒童이 興味있게 學習에 임하며, 中學校와의 연계성도 고려할 수 있다. 特히 兒童 機能伸張의 기회가 많으며, 擔任教師의 趣味와 전공에 맞는 教科指導로 권태감, 지루감 등을 排除할 수 있고,

註 26) 오근진, 「상계논문」, pp. 40 ~ 41

兒童에게 幅넓은 知識向上의 기회가 부여된다.

또한 教師指導의 취향 내지 편증이 시정되며, 正確하고 專門的이며 能率的인 授業을 展開할 수 있고, 兒童으로서는 能力있는 教師의 指導를 받을 기회가 많으며, 創意力을 伸張할 수 있다.

그 외에 專門性, 妥當性을 살린 學級 評價가 期待되며, 여러 教師의 人性을 고루 수용하는 것이 可能하고, 여러 教師와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

(3) 教師 活動面

우선 教師 事務量이 輕感되며 教師도 1人1教科目的 專門性을 갖게 되고, 教師로서의 專門知識과 機能을 涵養하게 되어, 教職 專門性 提高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研究負擔이 減少됨과 동시 研究熱이 촉진되어 教材 研究가 深化되고 教師의 能力差가 補完된다.

教師의 自己發見이라는 새로운 認識을 할 수 있으며, 教授資料의, 準備용이, 教師의 특기, 專攻發揮, 機會保障, 時間浪費의 排制, 學習方法의 改善, 學習指導 技術向上 등이 이룩될 수 있고, 兒童·學父兄으로부터 擔當 教科에 대한 권위 등을 確立할 수 있다.

4) 教科 專擔制의 短點

(1) 學級 經營面

特色있는 學級 經營과 責任感 있는 學級經營의 難點이 있고, 擔任의 學級에 대한 애착심이 不足될 可能性이 있으며, 多人口 學級, 學校에서 相當한 混難이 예기된다. 學級 經營上 複雜性을 면치 못하고,

學級 經營이나 學級 經營에 推進力이 弱化되기 쉽다. 27)

(2) 兒童 指導面

生活 指導에 가장 큰 難點이 있고, 國民學校 基礎教育이 專門知識 위주의 教育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으며, 各 教科間의 연결성이 缺如되어 總括的 全體的인 教科指導에 支障이 豫想된다.

兒童 個性把握(行動發達, 特性指導, 家庭環境등)이 困難하고 學習 부진아지도, 綜合的 人間形成, 人性指導, 人間教育, 등이 미약하다.

또한 兒童에게 繼續的이고, 일관성있는 指導가 不可能하며, 授業이 機械적으로 指導될 우려가 있고, 학습 분위기가 산만하여 授業 集中度가 낮을 염려가 있다.

또 內性的 兒童에도 극도로 緊張을 超來하여 心理적으로 不安定을 形成할 可能性이 있고, 各 教科間의 進도 統一이 困難하며, 兒童과 教師間의 融화缺如, 安全教育 缺如, 擔任 信賴度の 弱化 등이 우려 된다.

兒童의 能力差 내지 個人差를 考慮할 수 없으며, 보결수업이 困難하고 學習 方法의 統一性 不足으로 因한 學習效果의 伸張問題가 된다. 그밖에 責任을 서로 전가할 可能性에 따라 責任있는 指導가 缺如되기 쉽고, 學習이 興味 本위로 化할 수 있다.

(3) 教師 活動面

教師의 태만성이 길러질 우려가 있고 特技教師의 不足과 教育的 嚮포가 豫想된다.

註 27) 오근진, 「상계논문」, pp. 41 ~ 43

Ⅲ. 調查結果 및 解釋

1. 教科 專擔制의 必要性 認識度

1) 高學年 教師의 授業 負擔 輕減

〈表 - 8〉 高學年 教師의 授業 負擔 輕減

(單位 : %)

應答內容	性 別		經 歷 別				年 齡 別				學 歷 別				計
	男	女	1~10	11~20	21~30	31以上	20~30	31~40	41~50	51以上	師範學校	教育大學	師範大學	其他	
전혀 그렇지 않다	2 2.3	4 1.1	4 3.5		2 1.4		2 1.9	2 1.6	2 1.2		2 3.2	4 1.3			6 1.3
대체로 그렇지 않다		4 1.1			4 2.9				4 2.4			2 6		2 3.7	4 9
그저 그렇다	4 4.5	16 4.3	4 3.5	6 3.6	4 2.9	6 15.0	6 5.7	4 3.2	6 3.6	4 6.7	4 6.5	12 3.8	4 18.2		20 4.4
대체로 그렇다	18 20.5	66 17.8	16 14.0	34 20.5	26 18.8	8 20.0	14 13.2	26 21.0	34 20.2	10 16.7	12 19.4	54 16.9	8 36.4	10 18.5	84 18.3
아주 그렇다	64 72.7	280 75.7	90 78.9	126 75.9	102 73.9	26 65.0	84 79.2	92 74.2	122 72.6	46 76.7	44 71.0	248 77.5	10 45.5	42 77.8	344 75.1
계	88 19.2	370 80.8	114 24.9	166 36.2	138 30.1	40 8.7	106 23.1	124 27.1	168 36.7	60 13.1	62 13.5	320 69.9	22 4.8	54 11.8	458 100.0
x ² 치 및 유의도	x ² = 2.07 P > .05		x ² = 30.10 P < .01				x ² = 12.63 P > .05				x ² = 28.84 P < .01				

〈表 - 8〉은 ‘藝·體能 教科專擔制는 高學年 教師의 授業輕感을 위해서 반드시 實施해야 한다’에 대한 應答結果이다. 이를 全體的으로 볼때 ‘대체로 그렇다’가 18%, ‘아주 그렇다’가 75%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보아 約 93%에 該當하는 教師에게서 긍정적인 反應을 보였다. 이에 반해 ‘전혀 그렇지 않다’에 대해서는 1.3%의 낮은反

應을 보였다.

集團 變因間의 差異를 χ^2 를 檢證으로 알아본 結果 男.女 모두 約 93%에 該當하는 긍정적인 反應을 나타냈고, 5%의 水準에서 유의한 差異는 없었다.

經歷別에 있어서는 11-20年 教師가 ‘대체로 그렇다’가 21%, 1-10年의 教師가 ‘아주 그렇다’에 79%의 反應을 나타냈고, 1%의 水準에서 유의적인 差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年齡別에 있어서는 20-30歲의 教師가 79%, 50歲 以上の 教師가 77%, 31-40歲의 教師가 74%, 41-50歲의 教師가 73%의 順으로 ‘아주 그렇다’에 應答을 나타냈으며, 31-40歲의 教師가 約 95%의 긍정적인 反應을 보였고, 5%의 水準에서 유의한 差異는 없었다.

學歷別에 있어서는 教育大學 출신교사와 其他 출신교사가 각각 約 78%로 ‘아주 그렇다’에 應答하므로 가장 높은 反應을 나타냈고, 師範學校 출신교사가 約 90%로 가장 긍정적인 反應을 보였으며, 1%의 水準에서 유의적인 差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보아 教科 專擔制 實施는 高學年教師 授業負擔 輕減을 위해서 반드시 實施해야 하겠다.

2) 教育의 質的 向上을 위한 實施與否

<表-9>는 ‘教育의 質的 向上을 위한 教科專擔制 實施 與否’에 대한 반응이다. 이를 全體的으로 볼때 ‘대체로 그렇다’가 79%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긍정적인 反應을 나타낸 것이 約 94%의 높은 反應을 보였다. 이에 반해 ‘전혀 그렇지 않다’에는 9%에 불과하다. 集團 變因間

〈表-9〉 教育의 質的 向上을 위한 實施 與否

(單位: %)

應答內容	性 別		經 歷 別				年 齡 別				學 歷 別				計
	男	女	1~10	11~20	21~30	31以上	20~30	31~40	41~50	51以上	師範學校	教育大學	師範大學	其他	
전혀 그렇지 않다		4 1.1	4 3.5				4 3.8					2 6		2 3.7	4 9
대체로 그렇지 않다	2 2.3	6 1.6		4 2.4	4 2.9		2 1.9	2 1.6	4 2.4			6 1.9		2 3.7	8 1.7
그저 그렇다	2 2.3	14 3.8	2 1.8	6 3.6	2 1.4	6 15.0	4 3.8	4 3.2	4 2.4	4 6.7	4 6.5	8 2.5	2 9.1	2 3.7	16 3.5
대체로 그렇다	10 11.4	58 15.7	14 12.3	22 13.3	24 17.4	8 20.0	10 9.4	16 12.9	30 17.9	12 20.0	12 19.4	40 12.5	6 27.3	10 18.5	68 14.8
아주 그렇다	74 84.1	288 77.8	94 82.5	134 80.7	108 78.3	26 65.0	86 81.1	102 82.3	130 77.4	44 73.3	46 74.2	264 82.5	14 63.6	38 70.4	362 79.0
계	88 19.2	370 80.8	114 24.9	116 36.2	138 30.1	40 8.7	106 23.1	124 27.1	168 36.7	60 13.1	62 13.5	320 69.9	22 4.8	54 11.8	458 100.0
x ² 치 및 유의도	x ² = 2.83 P > .05		x ² = 37.37 P < .01				x ² = 22.14 P < .05				x ² = 19.68 P > .05				

의 差異를 X² 檢證으로 알아본 結果 男教師가 84%로 가장 높은反應을 보였고, 5%의 水準에서 유의한 差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經歷別에 있어서는 1-10年의 教師가 83%에, '아주 그렇다'의 反應으로, 31年 以上の 教師가 20%에 '대체로 그렇다'에 反應을 보였고, 21-30年의 教師가 約 95%의 긍정적인 反應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1%의 水準에서 유의的인 差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年齡別에 있어서는 51歲 以上の 教師가 '대체로 그렇다'에 20%의 反應을, 20-30歲의 教師가 '아주 그렇다'에 81%의 反應을 나타내었고, 31-40歲와 41-50歲가 約 94%의 긍정적인 反應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5%의水準에서 유의한 差異는 없었다.

學歷別로 보면 師範大 출신교사가 ‘대체로 그렇다’에 27%, 教育大 출신교사가 ‘아주 그렇다’에 83%의 높은反應을 나타냈으며, 5%水準에서 유의한 差異는 없었다.

다시 말하면 全體가 教育의 質的向上을 위해서는 教科專擔制는 반드시 實施해야 한다면 높은 反應을 나타내고 있다.

3) 擔任과 教科 專擔教師間的 갈등

〈表-10〉 擔任과 教科專擔 教師間的 갈등

(單位: %)

應答內容	性 別		經 歷 別				年 齡 別				學 歷 別				計
	男	女	1~10	11~20	21~30	31以上	20~30	31~40	41~50	51以上	師範學校	教育大學	師範大學	其他	
전혀 그렇지 않다	46 52.3	162 43.8	64 56.1	62 37.3	62 44.9	20 50.0	52 49.1	52 41.9	74 44.0	30 50.0	26 41.9	138 43.1	6 27.3	38 70.4	208 45.4
대체로 그렇지 않다	32 36.4	130 35.1	26 22.8	72 43.4	54 39.1	10 25.0	28 26.4	50 40.3	60 35.7	24 40.0	20 32.3	116 36.3	12 54.5	14 25.9	162 35.4
그저 그렇다	4 4.5	46 12.4	12 10.5	22 13.3	12 8.7	4 10.0	12 11.3	16 12.9	18 10.7	4 6.7	10 16.1	38 11.9		2 3.7	50 10.9
대체로 그렇지 않다	4 4.5	20 5.4	6 5.3	6 3.6	8 5.8	4 10.0	6 5.7	4 3.2	12 7.1	2 3.3	4 6.5	18 5.6	2 9.1		24 5.2
아주 그렇다	2 2.3	12 3.2	6 5.3	4 2.4	2 1.4	2 5.0	8 7.5	2 1.6	4 2.4		2 3.2	10 3.1	2 9.1		14 3.1
계	88 19.2	370 80.8	114 24.9	166 36.2	138 30.1	40 8.7	106 23.1	124 27.1	168 36.7	60 13.1	62 13.5	320 69.9	22 4.8	54 11.8	458 100.0
χ^2 치 및 유의도	$\chi^2 = 5.52$ $P > .05$		$\chi^2 = 23.17$ $P < .05$				$\chi^2 = 18.57$ $P > .05$				$\chi^2 = 28.20$ $P < .01$				

〈表-10〉은 ‘藝·體能 教科專擔制(擔任教師와 教科專擔教師間的 갈등이 생길 염려) 實施여부’에 대한 應答결과이다. 이를 全體的으

로 볼때 ‘전혀 그렇지 않다’가 45%, ‘대체로 그렇지 않다’가 35%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갈등이 생길 念慮가 거의 없대에 約 80%의 應答을 보이고 있다.

集團 變因間의 差異를 χ^2 의 檢證으로 알아본 結果 男教師가 ‘전혀 그렇지 않다’에 52%의 가장 높은反應을 나타낸 것에 반해, ‘아주 그렇다’에는 2%의 낮은 反應을 보였고, 5% 水準에서 유의한 差異는 없었다.

經歷別에서는 10年의 教師가 ‘전혀 그렇지 않다’에 56%의 가장 높은反應을 나타냈고, 31年 以上の 教師가 50%의 順으로 反應을 보였으며, 5%의 水準에서 유의적인 差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年齡別에서는 51歲 以上の 教師가 ‘전혀 그렇지 않다’에 50%의 가장 높은反應을, 31-40歲의 教師 및 51歲 以上の 教師가 ‘대체로 그렇지 않다’에 40%의 反應을 나타냈고, 51歲 以上の 教師가 不定的인 面に 約 90%의 反應을 나타냈으며, 5%의 水準에서 유의한 差異는 없었다.

學力別에서는 其他 출신교사가 ‘전혀 그렇지 않다’에 70%의 가장 높은反應을 보였고, 不定的인 面に 約 96%의 反應을 나타내었으며, 1%의 水準에서 유의적인 差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서 教科 專擔制 實施에 있어서 學級擔任과 專擔教師間의 갈등은 별로 問題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 教科 擔當教師의 所屬 不分明

< 表 - 11 >

教科 專擔教師의 所屬 不分明

(單位 : %)

應答內容	性 別		經 歷 別				年 齡 別				學 歷 別				計
	男	女	1~10	11~20	21~30	31以上	20~30	31~40	41~50	51以上	師範學校	教育大學	師範大學	其他	
전혀 그렇지 않다	8 9.1	26 7.0	6 5.3	16 9.6	8 5.8	4 10.0	6 5.7	14 11.3	6 3.6	8 13.3	4 6.5	24 7.5		6 11.1	34 7.4
대체로 그렇지 않다	10 11.4	66 17.8	18 15.8	24 14.5	26 18.8	8 20.0	14 13.2	22 17.7	26 15.5	14 23.3	12 19.4	48 15.0	6 27.3	10 18.5	76 16.6
그저 그렇다	22 25.0	100 27.0	38 33.3	30 18.1	48 34.8	6 15.0	34 32.1	22 17.7	48 28.6	18 30.0	22 35.5	84 26.3	8 36.4	8 14.8	122 26.6
대체로 그렇다	36 40.6	124 33.5	32 28.1	68 41.0	42 20.4	18 45.0	36 34.0	46 37.1	62 36.9	16 26.7	18 29.0	114 35.6	6 27.3	22 40.7	160 34.9
아주 그렇다	12 18.6	54 14.6	20 17.5	28 16.9	14 10.1	4 10.0	16 15.1	20 16.1	26 15.5	4 6.7	6 9.7	50 15.6	2 9.1	8 14.8	66 14.4
계	88 19.2	370 80.8	114 24.9	166 36.2	138 30.1	40 8.7	106 23.1	124 27.1	168 36.7	60 13.1	62 13.5	320 69.9	22 4.8	54 11.8	458 100.0
x ² 치 및 유의도	X ² = 3.47 P > .05		x ² = 24.80 P < .05				x ² = 21.54 P < 0.5				x ² = 13.84 P > .05				

< 表 - 11 > 은 '教科 擔當教師의 所屬 不分明으로 이의 기피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에 대한 應答結果이다. 이를 全體적으로 볼때 '대체로 그렇다'가 35%, '그저 그렇다'가 27%의 順으로 높은 反應을 나타낸 것으로 보아, 教科 擔當教師의 所屬 不分明으로 인한 기피현상은 별로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集團 變因間의 差異를 x²의 檢證으로 알아본 結果 男教師가 '대체로 그렇다'에 41%, '아주 그렇다'에 19%의 反應으로 나타났고, 女教師는 '대체로 그렇다'에 34%, '아주 그렇다'에 15%의

反應을 보이므로 男·女 모두 教科 專擔教師의 所屬 不分明으로 因한 기피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에 應答을 나타내고 있으며, 5%의 水準에서 유의한 差異는 없었다.

經歷別에 있어서는 31年 以上の 教師가 ‘대체로 그렇다’가 45%의 가장 높은 反應을 나타냈고, 11-20年의 教師가 41%의 反應 順으로 나타났으며, 5%의 水準에서 유의적인 差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年齡別에 있어서는 31-40歲의 教師와 41-50歲의 教師가 ‘대체로 그렇다’에 約 37%의 反應을 보였으며, 5%의 水準에서 유의한 差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學歷別에 있어서는 其他 출신교사가 ‘대체로 그렇다’에 41%의 反應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師範大 출신교사가 ‘그저 그렇다’에 36%의 反應 順으로 나타났으며, 5%의 水準에서 유의한 差異는 없었다.

5) 教科 專擔教師의 生活指導

<表 - 12>는 教科 專擔教師의 授業 擔當時 生活指導상의 애로에 대한 應答이다. 이를 볼 때 ‘대체로 그렇다’가 31%, ‘그저 그렇다’가 23%의 順으로 약간의 肯定的인 反應을 보였다. 이에 反해 ‘전혀 그렇지 않다’에 約 13%의 反應을 보이므로 生活指導에 애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集團 變因間의 差異를 x^2 의 檢證으로 알아본 結果 女教師가 ‘대체로 그렇다’에 31%, 男教師는 30%의 順으로 나타났다. 男·女 모두 肯定的인 面보다 不定的인 面에 많은 應答을 보이고 있으며, 5%의 水準에서 유의적인 差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 12 >

教科 專擔教師의 生活指導

(單位：%)

應答內容	性別		經歷別				年齡別				學歷別				計
	男	女	1~10	11~20	21~30	31以上	20~30	31~40	41~50	51以上	師範學校	教育大學	師範大學	其他	
전혀 그렇지 않다	18 20.5	40 10.8	22 19.3	18 10.8	16 11.6	2 5.0	18 17.0	12 9.7	18 10.7	10 16.7	6 9.7	42 13.1		10 18.5	58 12.7
대체로 그렇지 않다	14 15.9	88 23.8	20 17.5	38 22.9	42 30.4	2 5.0	18 17.0	34 27.4	44 26.2	6 10.0	4 6.5	78 24.4	8 36.4	12 22.2	102 22.3
그저 그렇다	24 27.3	82 22.2	22 19.3	38 22.9	34 24.6	12 30.0	18 17.0	24 19.4	46 27.4	18 30.0	26 41.9	64 20.0	2 9.1	14 25.9	106 23.1
대체로 그렇다	26 29.5	116 31.4	34 29.8	58 34.9	30 21.7	20 50.0	34 32.1	46 37.1	40 23.8	22 36.7	20 32.3	102 31.9	8 36.4	12 22.2	142 31.0
아주 그렇다	6 6.8	44 11.9	16 14.0	14 8.4	16 11.6	4 10.0	18 17.0	8 6.5	20 11.9	4 6.7	6 9.7	34 10.6	4 18.2	6 11.1	50 10.9
계	88 19.2	370 80.8	144 24.9	166 36.2	138 30.1	40 8.7	106 23.1	124 27.1	168 36.7	60 13.1	62 13.5	320 69.9	22 4.8	54 11.8	458 100.0
χ^2 치 및 유의도	$\chi^2 = 9.75$ $P < .05$		$\chi^2 = 30.11$ $P < .01$				$\chi^2 = 28.67$ $P < .01$				$\chi^2 = 30.02$ $P < .01$				

經歷別에서는 31年 以上の 教師가 ‘대체로 그렇다’에 50%로 가장 높은反應을 보여 肯定的인 面에 應答을 한 反面, 21-30年의 教師는 不定的인 面에 41%로 應答을 나타냈고, 1%의 水準에서 유의적인 差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年齡別에서는 全體的으로 不定的인 面에 많은 應答을 하고 있으나, 肯定的인 面과 비슷한 反應을 보이고 있으며, 31年의 教師는 ‘대체로 그렇다’에 50%의 應答을 하므로 肯定的인 面에 反應을 나타냈고, 1%의 水準에서 유의적인 差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學歷別에서는 師範大學 출신교사가 ‘대체로 그렇다’에 36%, ‘아

주 그렇다'에 18%로 肯定的인 面에 54%의 反應을 나타낸 것으로 보아, 生活指導의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보였고, 1%의 水準에서 유의적인 差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教科 專擔制 運營의 實態

1) 教育的 質的 水準 向上的 障礙要因과 授業 分량

〈表 - 13〉 教育的 質的 水準 向上的 障礙要因과 授業 分量

(單位: %)

應答內容	性 別		經 歷 別				年 齡 別				學 歷 別				計
	男	女	1~10	11~20	21~30	31以上	20~30	31~40	41~50	51以上	師範學校	教育大學	師範大學	其他	
전혀 그렇지 않다	2 2.3	4 1.1		2 1.2	2 1.4	2 5.0		2 1.6		4 6.7		2 6	2 9.1	2 3.7	6 1.3
대체로 그렇지 않다	4 4.5	20 5.4	6 5.3	8 4.8	8 5.8	2 5.0		10 8.1	12 7.1	2 3.3	2 3.2	16 5.0		6 11.1	24 5.2
그저 그렇다	8 9.1	54 14.6	14 12.3	28 16.9	16 11.6	4 10.0	10 9.4	22 17.7	26 15.5	4 6.7	4 6.5	46 14.4	8 36.4	4 7.4	62 13.5
대체로 그렇다.	54 61.4	170 45.9	50 43.9	82 49.4	70 50.7	22 55.0	50 47.2	58 46.8	86 51.2	30 50.0	42 67.7	156 48.8	6 27.3	20 37.0	224 48.9
아주 그렇다	20 22.7	122 33.0	44 38.6	46 27.7	42 30.4	10 25.0	46 43.4	32 25.8	44 26.2	20 33.3	14 22.6	100 31.3	6 27.3	22 40.7	142 31.0
계	88 19.2	370 80.8	114 24.9	166 36.2	138 30.1	40 8.7	106 23.1	124 27.1	168 36.7	60 13.1	62 13.5	320 69.9	22 4.8	54 11.8	458 100.0
x ² 치 및 유의도	x ² = 8.32 P > .05		x ² = 12.25 P > .05				x ² = 39.39 P < 0.07				x ² = 43.47 F < .01				

〈表 - 13〉은 '教育的 質的 水準 向上的 障礙要因은 過多한 授業 分量이다'에 對한 應答의 結果이다. 이를 全體的으로 볼때 '대체로 그렇다'가 49%, '아주 그렇다'가 31%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約

80%의 肯定的 反應을 보였다. 이에 反해 ‘전혀 그렇지 않다’에 대해서는 낮은 反應을 보이고 있다.

集團 變因間의 差異를 χ^2 의 檢證으로 알아본 結果 男, 女 모두 約 80%에 該當하는 肯定的인 反應을 나타냈고, 5%의 水準에서 유의한 差異는 없었다.

經歷別에 있어서는 ‘대체로 그렇다’의 應答 內容에 대해서는 經歷이 많을 수록 높은 應答을 보였고, ‘아주 그렇다’에 대한 應答은 1-10年의 教師가 39%의 가장 높은 反應을 나타냈으며, 5%의 水準에서 유의한 差異는 없었다.

年齡別에 있어서는 41-50歲의 教師가 ‘대체로 그렇다’에 51%, 51歲 以上の 教師가 50%, 20-30歲의 教師가 47%, 31-40歲의 教師가 47%의 順이며, 1%의 水準에서 유의적인 差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學力別에서는 師範學校 출신 교사가 ‘대체로 그렇다’에 68%로 가장 높은 應答을 나타냈고, 其他 출신 교사는 ‘아주 그렇다’에서 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全體的으로 師範學校 출신 교사가 約 91%의 높은 反應을 나타낸 것으로 보아, 教育의 質的 水準向上의 障礙 要因은 過多한 授業分量이라는 點에 큰 反應을 나타내고 있다.

2) 藝·體能 教科 專擔制의 實施 可能性 與否

<表 - 14.>는 本校의 狀態로 보아 ‘體育, 音樂, 美術과의 教科專擔制는 可能하다고 본다’에 對한 應答結果이다. 이를 全體的으로 볼때 ‘대체로 그렇다’가 27%, ‘아주 그렇다’가 26%로 근소한 差異로 나타났다으며, 肯定的인 面이 約 53%에 該當하여 不定的인 面보다는 높

< 表 - 14 >

藝. 體能 教科 專擔制의 實施 可能性 與否

(單位: %)

應答內容	性 別		經 歷 別				年 齡 別				學 歷 別				計
	男	女	1~10	11~20	21~30	31以上	20~30	31~40	41~50	51以上	師範學校	教育大學	師範大學	其他	
전혀 그렇지 않다	8 9.1	26 7.0	14 12.3	8 4.8	8 5.8	4 10.0	14 13.2	6 4.8	8 4.8	6 10.0	6 9.7	24 7.5		4 7.4	34 7.4
대체로 그렇지 않다	22 25.0	56 15.1	36 26.3	28 16.9	16 11.6	4 10.0	26 24.5	22 17.7	20 11.9	10 16.7	10 16.1	56 17.5	2 9.1	10 18.5	78 17.0
그저 그렇다	12 13.6	94 25.4	20 17.5	34 20.5	36 26.1	16 40.0	22 20.8	20 16.1	50 29.8	14 23.3	16 25.8	68 21.3	4 18.2	18 33.3	106 23.1
대체로 그렇다	28 31.8	94 25.4	22 19.3	40 24.1	48 34.8	12 30.0	16 15.1	38 30.6	46 27.4	22 36.7	22 35.5	78 24.4	12 54.5	10 18.5	122 26.6
아주 그렇다	18 20.5	100 27.0	28 24.6	56 33.7	30 21.7	4 10.0	28 26.4	38 30.6	44 26.2	8 13.3	8 12.9	94 29.4	4 18.2	12 22.2	118 25.8
계	88 19.2	370 80.8	114 24.9	166 36.2	138 30.1	40 8.7	106 23.1	124 27.1	168 36.7	60 13.1	62 13.5	320 69.9	22 4.8	54 11.8	458 100.0
χ^2 치 및 유의도	$\chi^2=11.01$ $P<.05$		$\chi^2=37.99$ $P<.01$				$\chi^2=33.36$ $P<.01$				$\chi^2=22.91$ $P<.05$				

은 反應을 나타냈으나, 크게 可能하지는 않다고 본다.

集團 變因間의 差異를 χ^2 의 檢證으로 알아본 結果, 女教師는 '아주 그렇다'에 27%, 男教師는 '대체로 그렇다'에 더 많은 應答을 나타냈고, 5%의 水準에서 유의적인 差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經歷別에 있어서는 31年 以上の 教師가 '그저 그렇다'에 40%로 가장 높은 反應을 보였고, 21-30年 教師가 '대체로 그렇다'에 34%, 11-20年 教師가 '아주 그렇다'에 34%의 順으로 應答을 보였으며, 1%의 水準에서 유의적인 差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年齡別에 있어서는 51歲 以上の 教師가 '대체로 그렇다'에 37% 31-40歲의 教師가 '아주 그렇다'에 31%의 反應을 나타냈으며, 1

%의 水準에서 유의적인 差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學歷別에서는 師範大 출신교사가 ‘대체로 그렇다’에 55%로 가장 높은 應答을 나타냈고, 師範學校 출신교사는 36%의 낮은 反應을 보였다. 이에 반해 師範大 출신교사중 ‘전혀 그렇지 않다’에는 전혀 應答을 하지 않았고, 5%의 水準에서 유의적인 差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體育科 授業의 自信感

<表 - 15>는 ‘體育科 授業의 自信感’에 對한 應答結果이다. 이를 全體的으로 볼때 ‘보통이다’가 67%로 가장 높은 應答을 나타냈고, ‘自信이 있다’는 19%, ‘自信이 없다’에는 14%의 順으로 應答을 보였다.

<表 - 15> 體育科 授業의 自信感

(單位：%)

應答內容	性 別		經 歷 別				年 齡 別				學 歷 別				計
	男	女	1~10	11~20	21~30	31以上	20~30	31~40	41~50	51以上	師範學校	教育大學	師範大學	其他	
자신이 있다	36 40.9	52 14.1	14 12.3	42 25.3	26 18.8	6 15.0	12 11.3	32 25.8	30 17.9	14 23.3	20 32.3	56 17.5	2 9.1	10 18.5	88 19.2
보통이다	50 56.8	256 69.2	76 66.7	102 61.4	102 73.9	26 65.0	70 66.0	76 61.3	122 72.6	38 63.3	34 54.8	220 68.8	14 63.6	38 70.4	306 66.8
자신이 없다	2 2.3	62 16.8	24 21.1	22 13.3	10 7.2	8 20.0	24 22.6	16 12.9	16 9.5	8 13.3	8 12.9	44 13.8	6 27.3	6 11.1	64 14.0
계	88 19.2	370 80.8	114 24.9	166 36.2	138 30.1	40 8.7	106 23.1	124 27.1	168 36.7	60 13.1	62 13.5	320 69.9	22 4.8	54 11.8	458 100.0
x ² 치 및 유의도	x ² = 38.98 P < .01		x ² = 17.86 P < .01				x ² = 16.66 P < .05				x ² = 11.97 P > .05				

集團 變因間의 差異를 x^2 의 檢證으로 알아본 結果 女教師가 '보통이다'에 69% 男教師는 57%의 應答을 나타냈고, '자신이 있다'에 41%, 女教師는 14%의 對照를 보였고, '자신이 없다'에는 女教師가 17%, 男教師가 2%의 差異를 보이므로 體育科 授業은 女教師보다 男教師가 자신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의 水準에서 유의적인 差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經歷別에서는 21-30 年の 教師가 74%, 1-10 年の 教師가 67%, 31 年 以上の 教師가 65%, 11-20 年の 教師가 61%의 順으로 應答을 나타냈고, 11-20 年の 教師는 '자신이 없다'에서 25%의 가장 높은 反應을 나타냈고, '자신이 없다'에는 21-30 年 教師가 7%의 낮은 反應을 보였으며, 1%의 水準에서 유의적인 差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年齡別에서는 41-50 歲의 教師가 '보통이다'에 73%의 가장 높은 反應으로 나타났으며, 經歷別에서와 비슷한 反應을 보였고, 5%의 水準에서 유의적인 差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學歷別에서는 其他 출신교사가 '보통이다'에 70%, 教育大 출신교사가 69%, 師範大 출신교사가 64%, 師範教師가 55%의 順으로 應答했으며, '자신이 있다'에는 師範學校 출신교사가 32%의 가장 높은 反應을 나타냈고, 5%의 水準에서 유의한 差異는 없었다.

4) 音樂科 授業의 自信感

<表 - 16>은 '音樂과 授業의 自信感'에 대한 應答結果이다. 이를 全體的으로 볼때 體育科에서와 비슷한 反應으로 '보통이다'가 64%,

< 表 - 16 >

音樂과 授業의 自信感

(單位 : %)

應答內容	性 別		經 歷 別				年 齡 別				學 歷 別				計
	男	女	1~10	11~20	21~30	31以上	20~30	31~40	41~50	51以上	師範學校	教育大學	師範大學	其他	
자신이 있다	16 18.2	78 21.1	14 12.3	40 24.1	32 23.2	8 20.0	16 15.1	30 24.2	34 20.2	14 23.3	18 29.0	64 20.0		12 22.2	94 20.5
보통이다	44 50.0	250 67.6	72 63.2	102 61.4	92 66.7	28 70.0	64 60.4	78 62.9	116 69.0	36 60.0	38 61.3	210 65.6	16 72.7	30 55.6	294 64.2
자신이 없다	28 31.8	42 11.4	28 24.6	24 14.5	14 10.1	4 10.0	26 24.5	16 12.9	18 10.7	10 16.7	6 9.7	46 14.4	6 27.3	12 22.2	70 15.3
계	88 19.2	370 80.8	114 24.9	166 36.2	138 30.1	40 8.7	106 23.1	124 27.1	168 36.7	60 13.1	62 13.5	320 69.9	22 4.8	54 11.8	458 100.0
x ² 치 및 유의도	x ² = 23.19 P < .01		x ² = 15.45 P < .05				x ² = 12.38 P > .05				x ² = 13.09 P < .05				

‘자신이 있다’가 21%, ‘자신이 없다’에 15%의 順으로 應答을 나타냈다.

集團 變因間의 差異를 x² 檢證으로 알아본 結果 ‘보통이다’에는 女教師가 68%, ‘자신이 없다’에 男教師가 32%, ‘자신이 있다’에 女教師가 21%의 順으로 應答을 나타낸 것으로 보아, 音樂과의 指導는 女教師가 더 자신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의 水準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經歷別에 있어서는 ‘보통이다’에 대하여 31年 以上の 教師가 70%, 21-30年의 教師가 67%, 1-10年의 教師가 63%, 11-20年의 教師가 61%의 順으로 應答을 나타냈고, ‘자신이 없다’에 대하여는 1-10年의 教師가 25%의 가장 높은 應答으로, 經歷이 적은 教師일 수록 自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신이 있다’에는 中견교사에

서 높은 反應을 나타냈으며, 5%의 水準에서 有意적인 差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年齡別에 있어서는 經歷에서와 비슷한 反應을 보였고, 5%의 水準에서 有意한 차이는 없었다.

學歷別에서는 ‘자신이 없다’에 師範大 출신교사가 27%에, ‘자신이 있다’에 師範學校 출신교사가 29%로 가장 높은 應答을 나타냈으며, 師範大 출신교사는 ‘자신이 있다’에 應答한 教師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音樂科 指導에 대한 教師의 機能研修活動이 계속적으로 施行되어야 하며, 5%의 水準에서 有意적인 差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美術科 授業의 自信感

<表 - 17>은 ‘美術科 授業의 自信感’에 대한 應答結果이다. 이를 全體적으로 볼때 ‘보통이다’에 63%로 가장 높은 應答을 나타냈고,

<表 - 17> 美術科 授業의 自信感

(單位: %)

應答內容	性 別		經 歷 別				年 齡 別				學 歷 別				計
	男	女	1~10	11~20	21~30	31以上	20~30	31~40	41~50	51以上	師範學校	教育大學	師範大學	其他	
자신이 있다	14 15.9	72 19.5	12 10.5	32 19.3	36 26.1	6 15.0	18 17.0	22 17.7	34 20.2	12 20.0	6 9.7	60 18.8	4 18.2	16 29.6	86 18.8
보통이다	50 56.8	238 64.3	84 73.7	100 60.2	78 56.5	26 65.0	72 67.9	76 61.3	100 59.5	40 66.7	46 74.2	202 63.1	12 54.5	28 51.9	288 62.9
자신이 없다	24 27.3	60 16.2	18 15.8	34 20.5	24 17.4	8 20.0	16 15.1	26 21.0	34 20.2	8 13.3	10 16.1	58 18.1	6 27.3	10 18.5	84 18.3
계	88 192	370 80.8	114 24.9	166 36.2	138 30.1	40 8.7	106 23.1	124 27.1	168 36.7	60 13.1	62 13.5	320 69.9	22 4.8	54 11.8	458 100.0
x ² 치 및 有意도	x ² = 5.85 P > .05		x ² = 12.54 P > .05				x ² = 3.63 P > .05				x ² = 9.80 P > .05				

‘자신이 있다’에 19%, ‘자신이 없다’에 18%의 순으로 나타났다.

集團 變因間의 差異를 x^2 의 檢證으로 알아본 結果 女教師가 ‘보통이다’에 64%로 ‘자신이 없다’에는 男教師가 27%, ‘자신이 있다’에는 女教師가 20% 더 많은 應答을 나타내고 있으며, 5%의 水準에서 유의한 差異는 없었다.

經歷別에서는 21-30年의 教師가 ‘자신이 있다’에 26%의 가장 높은 應答을 나타냈고, ‘자신이 없다’에는 11-20年의 教師가 21%로 가장 높은 反應을 나타냈으며, 5%의 水準에서 유의한 差異는 없었다.

年齡別에서는 51歲 以上の 教師가 ‘보통이다’에 67%로 가장 높은 應答을, ‘자신이 없다’에는 31-40歲의 教師가 21%, 41-50歲의 教師가 20%로 비슷한 反應을 보였고, 51歲 以上の 教師가 20%의 같은 應答을 나타냈으며, 5%의 水準에서 유의한 差異는 없었다.

學歷別에서는 ‘보통이다’에 師範學校 출신교사가 74%로, ‘자신이 없다’에서는 師範大 출신교사가 27%, ‘자신이 있다’에서는 其他 출신교사가 30%의 각각 높은 應答을 나타냈으며, 5%의 水準에서 유의한 差異는 없었다.

3. 教科 專擔教師의 養成制度

1) 教科 專擔教師의 養成制度

〈表-18〉은 ‘藝·體能 教科의 質的向上的 爲하여 教師의 養成制度가 이루어져야 한다’에 대한 應答結果이다. 이를 全體적으로 볼때 ‘아주 그렇다’에 56%로 가장 높은 應答을 나타냈고, ‘대체로 그렇다’에는 33%의 應答을 보이므로 約 89%가 肯定的인 反應을 보였다. 이에

< 表 - 18 >

教科 專擔教師의 養成制度

(單位：%)

應答內容	性 別		經 歷 別				年 齡 別				學 歷 別				計
	男	女	1~10	11~20	21~30	31以上	20~30	31~40	41~50	51以上	師範學校	教育大學	師範大學	其他	
전혀 그렇지 않다		2 .5			2 1.4					2 3.3				2 3.7	2 .4
대체로 그렇지 않다		12 3.2	2 1.8	4 2.4	6 4.3		2 1.9	2 1.6	6 3.6	2 3.3	4 6.5	6 1.9		2 3.7	12 2.6
그저 그렇다	2 2.3	36 9.7	6 5.3	18 10.8	10 7.2	4 10.0	6 5.7	10 8.1	20 11.9	2 3.3	6 9.7	22 6.9	4 18.2	6 11.1	38 8.3
대체로 그렇다	32 36.4	120 32.4	36 31.6	54 32.5	46 33.3	16 40.0	36 34.0	32 25.8	60 35.7	24 40.0	32 51.6	98 30.6	6 27.3	16 29.6	152 33.2
아주 그렇다	54 61.4	200 54.1	70 61.4	90 54.2	74 53.6	20 50.0	62 58.5	80 64.5	82 48.8	30 50.0	20 32.3	194 60.6	12 54.5	28 51.9	254 55.5
계	88 19.2	370 80.8	114 24.9	166 36.2	138 30.1	40 8.7	106 23.1	124 27.1	168 36.7	60 13.1	62 13.5	320 69.9	22 4.8	54 11.8	458 100.0
χ^2 치 및 유의도	$\chi^2 = 9.11$ $P > .05$		$\chi^2 = 12.27$ $P > .05$				$\chi^2 = 26.86$ $P < .05$				$\chi^2 = 39.06$ $P < .01$				

反해 ‘ 전혀 그렇지 않다 ’ 에 대해서는 0.4%의 낮은 反應을 보이고 있다.

集團 變因間의 差異를 χ^2 의 檢證으로 알아본 結果 男教師가 肯定的인 反應에 約 97%의 應答을 나타내고 있으며, 5%의 水準에서 유의한 差異는 없었다.

經歷別에서는 ‘ 아주 그렇다 ’ 에 經歷이 적을수록 높은 應答을 보였고, ‘ 대체로 그렇다 ’ 에서는 經歷이 많을수록 높은 應答을 나타냈으며, 5%의 水準에서 유의한 差異는 없었다.

年齡別에서는 31-40 歲의 教師가 65%, 20-30 歲의 教師가 59%, 51 歲 以上の 教師가 50%, 41-50 歲의 教師가 49%의 順으로 ‘ 아

주 그렇다'에 應答을 했고, 年齡別에서는 모두 肯定的인 面에 높은 反應을 나타낸 것으로 보아, 教科 專擔教師의 養成制度가 必要함을 나타냈으며, 5%의 水準에서 유의적인 差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教科 專擔 教師의 資格證制度

〈表 - 19〉 教科 專擔教師의 資格證 制度

(單位 : %)

應答內容	性 別		經 歷 別				年 齡 別				學 歷 別				計
	男	女	1~10	11~20	21~30	31以上	20~30	31~40	41~50	51以上	師範學校	教育大學	師範大學	其他	
전혀 그렇지 않다		6 1.6		4 2.4	2 1.4			2 1.6	4 2.4		4 6.5	2 .6			6 1.3
대체로 그렇지 않다		14 3.8	2 1.8	2 1.2	10 7.2		2 1.9		10 6.0	2 3.3	4 6.5	6 1.9		4 7.4	14 3.1
그저 그렇다	.4 4.5	44 11.9	16 14.0	14 8.4	10 7.2	8 20.0	18 17.0	12 9.7	12 7.1	6 10.0	8 12.9	34 10.6	2 9.1	4 7.4	48 10.5
대체로 그렇지 않다	42 47.7	114 30.8	32 28.1	60 36.1	50 36.2	14 35.0	36 34.0	34 37.4	62 36.9	24 40.0	24 38.7	106 33.1	12 54.5	14 25.9	156 34.1
아주 그렇다	42 47.7	192 51.9	64 56.1	86 51.8	66 47.8	18 45.0	50 47.2	76 61.3	80 47.6	28 46.7	22 35.5	172 53.8	8 36.4	32 59.3	234 51.1
계	88 19.2	370 80.8	114 24.9	166 36.2	138 30.1	40 8.7	106 23.1	124 27.1	168 36.7	60 13.1	62 13.5	320 69.9	22 4.8	54 11.8	458 100.0
x ² 치 및 유의도	x ² = 14.63 P < .01		x ² = 24.86 P < .05				x ² = 24.86 P < .05				x ² = 32.62 P < .01				

〈表 - 19〉는 '藝·體能 教科 專擔教師의 資格證制度의 필요성'에 대한 應答結果이다. 이를 全體적으로 볼때 '아주 그렇다'에 51%, '대체로 그렇다'에 34%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約 85%의 肯定的인 反應을 보였다.

이에 反해 '전혀 그렇지 않다'에 대해서는 1.3%의 낮은 反應

을 나타내어 教科 專門教師의 資格證制度가 絶실히 必要함을 나타내고 있다.

集團 變因間의 差異를 χ^2 의 檢證으로 알아본 結果 女教師가 '아주 그렇다'에 52%, 男教師는 '대체로 그렇다'에 48%의 더 높은 反應을 나타내고 있으나, 결국 男.女 모두 約 85%의 肯定的인 反應을 나타내고 있으며, 1%의 水準에서 유의적인 差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經歷別에서는 '아주 그렇다'에 1-10년의 教師가 56%, 11-20년의 教師가 52%, 21-30년의 教師가 56%, 31년 以上の 教師가 45%의 順이며, 經歷이 적을수록 높은 應答을 나타냈고, 5%의 水準에서 유의적인 差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年齡別에서는 31-40歲의 教師가 '아주 그렇다'에 61%로 가장 높은 應答을 보였고, 그외의 教師들은 約 47%의 같은 反應인 것으로 보아, 31-40歲의 教師가 가장 絶실히 나타냈으며, 5% 水準에서 유의적인 差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學歷別에서는 其他 출신의 教師가 '아주 그렇다'에 59%로 가장 높은 應答을 보였고, 教育大學校 출신의 教師가 54%의 反應을 보여 非 師範係 출신의 教師가 資格證 制度를 絶실히 원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1%의 水準에서 유의적인 差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藝·體能 教科의 副專攻制 導入

< 表 - 20 >

藝·體能 教科의 副專攻制 導入

(單位 : %)

應答內容	性別		經歷別				年齡別				學歷別				計
	男	女	1~10	11~20	21~30	31以上	20~30	31~40	41~50	51以上	師範學校	教育大學	師範大學	其他	
전혀 그렇지 않다		8 2.2	4 3.5	2 1.2	2 1.4		6 5.7		2 1.2			8 2.5			8 1.7
대체로 그렇지 않다		12 3.2	10 8.8	2 1.2			8 7.5	4 3.2				10 3.1		2 3.7	12 2.6
그저 그렇다	4 4.5	38 10.3	4 3.5	14 8.4	20 14.5	4 10.0	4 3.8	8 6.5	26 15.5	4 6.7	10 16.1	24 7.5		8 14.8	42 9.2
대체로 그렇지 않다	26 29.5	120 32.4	34 29.8	60 36.1	36 36.1	16 40.0	36 34.0	46 37.1	44 26.2	20 33.3	24 38.7	100 31.3	4 18.2	18 33.3	146 31.9
아주 그렇다	58 65.9	192 51.9	62 54.4	88 53.0	80 58.0	20 50.0	52 49.1	66 53.2	96 57.1	36 60.0	28 45.2	178 55.6	18 81.8	26 48.1	250 54.6
계	88 19.2	370 80.8	114 24.9	166 36.2	138 30.1	40 8.7	106 23.1	124 27.1	168 36.7	60 13.1	62 13.5	320 69.9	22 4.8	54 11.8	458 100.0
x ² 치 및 유의도	x ² = 10.04 P < .05		x ² = 37.74 P < .01				x ² = 44.94 P < .01				x ² = 21.09 P < .05				

< 表 - 20 > 은 ' 教大 등 初等敎員 養成機關에서 藝·體能 教科 副專攻制 導入 ' 에 대한 應答結果이다. 이를 全體的으로 볼때 ' 아주 그렇다 ' 에 55 %, ' 대체로 그렇다 ' 가 32 % 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約 87 % 의 肯定的인 反應을 보였다. 이에 반해 ' 전혀 그렇지 않다 ' 에 대해서는 1.7 % 의 낮은 反應을 보이고 있다.

集團 變因間의 差異를 x² 의 檢證으로 알아본 結果 男敎師가 ' 아주 그렇다 ' 에 66 %, 女敎師는 ' 대체로 그렇다 ' 에 32 % 더 많은 應答을 나타냈고, 男敎師는 不定的인 面에는 전혀 應答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5 % 의 水準에서 유의적인 差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經歷別에 있어서는 21-30 年の 教師가 ‘아주 그렇다’에 58%, 1-10 年の 教師가 54%, 11-20 年の 教師가 53%, 31 年の 教師가 50%의 順으로 應答을 했고, 대체로 그렇다’에는 31 年の 教師가 40%로 가장 높은 應答을 보이므로, 90%의 肯定的인 應答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의 水準에서 유의적인 差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年齡別에 있어서는 51 歲 以上の 教師가 ‘아주 그렇다’에 60%로 가장 높은 應答을 보였으며, 年齡이 낮을수록 낮은 應答을 나타낸 것으로 보아, 年齡이 많은 教師일수록 副專功制 導入을 원하고 있는 경향이며, 1%의 水準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學力別에서는 師範大學 출신의 교사가 ‘아주 그렇다’에 82%의 가장 높은 應答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師範大 출신 教師가 資格證 導入을 크게 원하고 있으며, 5%의 水準에서 유의적인 差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教科 專擔制의 適用 範圍

1) 藝·體能 指導 對象 學年

〈表-21〉은 ‘藝·體能 指導對象 學年에 대한 應答結果이다. 이를 全體적으로 볼때 ‘아주 그렇다’가 41%, ‘대체로 그렇다’가 32%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約 73%의 肯定的인 反應을 보였다. 이에 반해 ‘전혀 그렇지 않다’에 대해서는 5%의 낮은 反應을 보이고 있어, 對象學年은 4 學年 以上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集團 變因間의 差異를 χ^2 의 檢證으로 알아본 結果, 女教師가 ‘아주 그렇다’에 43%, 男教師는 ‘대체로 그렇다’에 34% 더 많은 應答을 나타냈고, 肯定的인 面에는 女教師가 74%의 높은 應答을 보였으며, 5%의 水準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經歷別에서는 1-10年의 教師가 ‘아주 그렇다’에 47%로 가장 높은 反應을 나타냈고, 經歷이 높을수록 낮은 反應을 나타내고 있으며, 1% 水準에서 유의적인 差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年齡別에서는 經歷에서와 비슷한 反應을 보이고 있으며, 5%의 水準에서 유의적인 差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學歷別에서는 師範大學 출신교사가 ‘아주 그렇다’에 55%로 가

< 表 - 21 >

藝·體能 指導 對象 學年

(單位 : %)

應答內容	性 別		經 歷 別				年 齡 別				學 歷 別				計
	男	女	1~10	11~20	21~30	31以上	20~30	31~40	41~50	51以上	師範學校	教育大學	師範大學	其他	
전혀 그렇지 않다	6 6.8	18 4.9	6 5.3	8 4.8	8 5.8	2 5.0	8 7.5	6 4.8	4 2.4	6 10.0	6 9.7	16 5.0		2 3.7	24 5.2
대체로 그렇지 않다	12 13.6	38 10.3	4 3.5	18 10.8	18 13.0	10 25.0	4 3.8	12 9.7	24 14.3	10 16.7	14 22.6	30 9.4	2 9.1	4 7.4	50 10.9
그저 그렇다	12 13.6	38 10.3	30 17.5	10 6.0	16 11.6	4 10.0	16 15.1	8 6.5	20 11.9	6 10.0	4 6.5	40 12.5		6 11.1	50 10.9
대체로 그렇지 않다	30 34.1	116 31.4	30 26.3	60 36.1	42 30.4	14 35.0	28 26.4	44 35.5	52 31.0	22 36.7	24 38.7	98 30.6	8 36.4	16 29.6	146 31.9
아주 그렇다	28 31.8	160 43.2	54 47.4	70 42.2	54 39.1	10 25.0	50 47.2	54 40.5	68 40.5	16 26.7	14 22.6	136 42.5	12 54.5	26 48.1	188 41.0
계	88 19.2	370 80.8	114 24.9	166 36.2	138 30.1	40 8.7	106 23.1	124 27.1	168 36.7	60 13.1	62 13.5	320 69.9	22 4.8	54 11.8	458 100.0
χ^2 치 및 유의도	$\chi^2 = 4.42$ $P > .05$		$\chi^2 = 28.08$ $P < .01$				$\chi^2 = 25.34$ $P < .05$				$\chi^2 = 25.37$ $P < .05$				

장 높은 應答을 나타냈고, 其他 출신교사가 48%의 反應을 보였으며, 肯定的인 反應은 師範大 출신교사가 約 90%의 높은 應答을 나타냈고, 5% 水準에서 유의적인 差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指導해야 할 教科의 種類

<表 - 22 >

指導해야 할 教科의 種類

(單位: %)

應答內容	性 別		經 歷 別				年 齡 別				學 歷 別				計
	男	女	1~10	11~20	21~30	31以上	20~30	31~40	41~50	51以上	師範學校	教育大學	師範大學	其他	
전혀 그렇지 않다	2 2.3	10 2.7	2 1.8	2 1.2	4 2.9	4 10.0	2 1.9		4 2.4	6 10.0	2 3.2	6 1.9		4 7.4	12 2.6
대체로 그렇지 않다	6 6.8	52 14.1	12 10.5	22 13.3	18 13.0	6 15.0	14 13.2	16 12.9	22 13.1	6 10.0	10 16.1	44 13.8		4 7.4	58 12.7
그저 그렇다	22 25.0	40 10.8	10 8.8	13 10.8	26 18.8	8 20.0	8 7.5	16 12.9	24 14.3	14 23.3	12 19.4	36 11.3	4 18.2	10 18.5	62 13.5
대체로 그렇다	32 36.4	102 27.6	36 31.6	58 34.9	34 24.6	6 15.0	30 28.3	40 32.3	52 31.0	12 20.0	18 29.0	90 28.1	8 36.4	18 33.3	134 29.3
아주 그렇다	26 29.5	166 44.9	54 47.4	66 39.8	56 40.6	16 40.0	52 49.1	52 41.9	66 39.3	22 36.7	20 32.3	144 45.0	10 45.5	18 33.3	192 41.9
계	88 19.2	370 80.8	114 24.9	166 36.2	138 30.1	40 8.7	106 23.1	124 27.1	168 36.7	60 13.1	62 13.5	320 69.9	22 4.8	54 11.8	458 100.0
x ² 치 및 유의도	x ² = 19.42 P < .01		x ² = 24.41 P < .05				x ² = 27.83 P < .01				x ² = 18.98 P > .05				

<表 - 22 >는 ‘指導해야 할 教科의 種類, 즉, 體育, 音樂, 美術, 實科 등 4教科가 適當하다’에 대한 應答結果이다. 이를 全體的으로 볼때 ‘아주 그렇다’가 42%, ‘대체로 그렇다’가 29%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約 71%의 反應을 보였다. 이에 반해 ‘전혀 그렇지 않다’에 대해서는 3%의 낮은 反應을 보이고 있다.

集團 變因間의 差異를 x^2 의 檢證으로 알아본 結果, 肯定的인 面에 男教師가 約 66%, 女教師가 約 73%의 應答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女教師가 더 높은 反應을 나타냈으며, 1%의 水準에서 유의적인 差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經歷別에서는 1-10年의 教師가 ‘아주 그렇다’에 48%로 가장 높은 應答을 나타냈고, 그 이상의 經歷教師들은 約 40%의 應答을 했고, 가장 肯定的인 反應을 보인 것은 1-10年의 教師로 79%의 應答을 나타냈으며, 5%의 水準에서 유의적인 差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年齡別에서는 年齡이 적을수록 ‘아주 그렇다’에 높은 反應을 보이므로, 年齡이 적은 教師일수록 4教科가 適當하다고 應答을 했으며 1%의 水準에서 유의적인 差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學歷別에서는 師範學校와 其他 출신의 教師가 ‘아주 그렇다’에 約 33%의 應答을 나타냈으며, 教育大學과 師範大學 출신교사가 約 45%의 應答으로 거의 비슷한 反應을 나타냈고, 師範大 출신교사가 約 80%의 肯定的인 反應을 보였으며, 5%의 水準에서 유의한 差異는 없었다.

5. 教科 專擔制의 期待效果

1) 藝·體能 教育課程 配當時間 履行

<表 - 23>은 ‘藝·體能 教科專擔制를 實施함으로서, 教育課程, 時間 配當은 빠짐없이 施行될 것이다’에 對한 應答結果이다. 이를 全體的으로 볼때 ‘아주 그렇다’가 57%, ‘대체로 그렇다’가 34%로 나

타난 것으로 보아, 約 91%의 肯定的인 反應을 보였다. 이에 反해 ‘ 전혀 그렇지 않다 ’에 대해서는 4%의 낮은 反應을 보이고 있다.

集團 變因間의 差異를 χ^2 의 檢證으로 알아본 結果 ‘ 아주 그렇다 ’에 女教師가 58%, 男教師가 52%로 거의 같은 反應을 나타냈으나, 肯定的인 反應에서는 男教師가 約 93%의 應答으로, 男教師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5%의 水準에서 유의적인 差異는 없었다.

經歷別에서는 ‘ 아주 그렇다 ’에 31年 以上の 教師가 60%로 가장 높은 反應으로 나타났으나, 肯定的인 面에서는 1-10年의 教師가 約 91%로 가장 높은 反應을 보였으며, 5% 水準에서 유의한 差異는 없었다.

年齡別에서는 31-40歲의 教師가 ‘ 아주 그렇다 ’에 66%로 가장 높은 反應으로 나타났으며, 肯定的인 面에서도 約 95%의 應答으로 나타났고, 5% 水準에서 유의적인 差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學歷別에서는 其他 출신교사가 ‘ 아주 그렇다 ’에 63%, 師範大學 출신교사가 ‘ 대체로 그렇다 ’에 61%로 가장 높은 應答을 나타냈으며, 肯定的인 應答을 가장 높게 나타낸 것은 師範大學 출신교사이며, 不定的인 反應은 전혀 없었고, 5%의 水準에서 유의적인 差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全體의 約 91%가 肯定的인 面에 높은 應答을 나타낸 것으로 보아, 教育課程時間 履行이 잘 되고 있음을 보였다.

< 表 - 23 >

藝·體能 教育課程 配當時間 履行

(單位：%)

應答內容	性 別		經 歷 別				年 齡 別				學 歷 別				計
	男	女	1~10	11~20	21~30	31以上	20~30	31~40	41~50	51以上	師範學校	教育大學	師範大學	其他	
대체로 그렇지 않다	4 4.5	12 3.2	6 5.3	6 3.6	4 2.9		8 7.5	2 1.6	6 3.6		2 3.2	10 3.1		4 7.4	16 3.5
그저 그렇다	2 2.3	26 7.0	4 3.5	8 4.8	12 8.7	4 10.0	4 3.8	4 3.2	16 9.5	4 6.7	6 9.7	22 6.9			28 6.1
대체로 그렇다	36 40.9	118 31.9	46 40.4	54 32.5	42 30.4	12 30.0	42 39.6	36 29.0	54 32.1	22 36.7	20 32.3	104 32.5	14 63.6	16 29.6	154 33.6
아주 그렇다	46 52.3	214 57.8	58 50.9	98 59.0	80 58.0	24 60.0	52 49.1	82 66.1	92 54.8	34 56.7	34 54.8	184 57.5	8 36.4	34 63.0	260 56.8
계	88 19.2	370 80.8	114 24.9	166 36.2	138 30.1	40 8.7	106 23.1	124 27.1	168 36.7	60 13.1	62 13.5	320 69.9	22 4.8	54 11.8	458 10.0
x ² 치 및 유의도	x ² = 5.08 P > .05		x ² = 9.90 P > .05				x ² = 19.53 P < .05				x ² = 17.86 P < .05				

2) 密度 높은 授業의 效果

< 表 - 24 > 는 ‘藝·體能 教科專擔制를 實施한다면 授業의 質을 높이는데 效果가 클 것이다’에 대한 應答結果이다. 이를 全體적으로 볼때, ‘아주 그렇다’가 67%로 가장 높은 反應으로 나타났고, ‘대체로 그렇다’는 29%의 反應으로, 肯定的인 應答은 約 9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不定的인 應答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그저 그렇다’도 4%의 낮은 反應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절대 다수의 應答者들이 密度높은 授業이 될 것이라 期待하고 있다.

集團 變因間의 差異를 x²의 檢證으로 알아본 結果 男·女 모두

約 96 %에 該當하는 肯定的인 反應을 나타내었고, 5 %의 水準에서 유의한 差異는 없었다.

經歷別에서는 1-10 年の 教師가 ‘아주 그렇다’에 77 %, 21- 30 年の 教師가 68 %, 11-20 年の 教師가 63 %, 31 年の 教師가 55 % 의 順으로 應答을 나타냈으나, 21 - 30 年の 教師가 約 100 %의 肯定的인 反應을 보였고, 1 %의 水準에서 유의적인 差異가 있는 것으로 나타냈다.

年齡別에서는 31-40 歳の 教師가 ‘아주 그렇다’에 71 %, 20-30 歳の 教師가 70 %의 應答과 51 歲 教師와 41-50 歳の 教師는 約 63 %의 應答으로 거의 같은 反應을 보였고, 41-50 歳の 教師와 57 歳の 教師가 約 96 %의 肯定的인 反應을 나타냈고, 5 %의 水準에서 유의한 差異는 없었다.

學歷別에서는 其他 출신의 教師가 ‘아주 그렇다’에 74 %, 대체

< 表 - 24 >

密度 높은 授業의 效果

(單位 : %)

應答內容	性 別		經 歷 別				年 齡 別				學 歷 別				計
	男	女	1~10	11~20	21~30	31以上	20~30	31~40	41~50	51以上	師範學校	教育大學	師範大學	其他	
그저 그렇다	4 4.5	16 4.3	4 3.5	12 7.2		4 10.0	6 5.7	6 4.8	6 3.6	2 3.3	6 9.7	12 3.8	2 9.1		20 4.4
대체로 그렇지 않다	28 31.8	104 28.1	32 19.3	50 30.1	46 33.3	14 35.0	26 24.5	30 24.2	56 33.3	20 33.3	26 41.9	84 26.3	8 36.4	14 25.9	132 28.8
아주 그렇다	56 63.6	250 67.6	88 77.2	104 62.7	92 66.7	22 55.0	74 69.8	88 71.0	106 63.1	38 63.3	30 48.4	224 70.0	12 54.5	40 74.1	306 66.8
계	88 19.2	370 80.8	114 24.9	166 36.2	138 30.1	40 8.7	106 23.1	124 27.1	168 36.7	60 13.1	62 13.5	320 69.9	22 4.8	54 11.8	458 100.0
x ² 치 및 有意도	x ² = 0.51 P > .05		x ² = 20.53 P < .01				x ² = 4.98 P > .05				x ² = 17.34 P < .01				

로 그렇다'에 26%의 應答으로 約 100%의 肯定的인 反應을 보였고, 教育大學 출신교사가 約 96%의 順으로 나타났으며, 1%의 水準에서 유의적인 差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特別室과 施設의 確保

<表 - 25 >

特別室과 施設의 確保

(單位: %)

應答內容	性 別		經 歷 別				年 齡 別				學 歷 別				計
	男	女	1~10	11~20	21~30	31以上	20~30	31~40	41~50	51以上	師範學校	教育大學	師範大學	其他	
전혀 그렇지 않다		2 .5			2 1.4				2 1.2			2 6			2 4
대체로 그렇지 않다	2 2.3	4 1.1	2 1.8	2 1.2	2 1.4		4 3.8		2 1.2			4 1.3		2 3.7	6 1.3
그저 그렇다	4 4.5	12 3.2		8 4.8	6 4.3	2 5.0		4 3.2	10 6.0	2 3.3	4 6.5	6 1.9	2 9.1	4 7.4	16 3.5
대체로 그렇다	12 13.6	62 16.8	24 21.1	28 16.9	18 13.0	4 10.0	20 18.9	10 8.1	36 21.4	8 13.3	10 16.1	48 15.0	2 9.1	14 25.9	74 16.2
아주 그렇다	70 79.5	290 78.4	88 77.2	128 77.1	110 79.7	34 85.0	82 77.4	110 88.7	118 70.2	50 83.3	48 77.4	260 81.3	18 81.8	34 63.0	360 78.6
계	88 19.2	370 80.8	114 24.9	166 36.2	138 30.1	40 8.7	106 23.1	124 27.1	168 36.7	60 13.1	62 13.5	320 69.9	22 4.8	54 11.8	458 100.0
χ^2 치 및 유의도	$\chi^2=2.03$ $P > .05$		$\chi^2 = 14.54$ $P > .05$				$\chi^2 = 29.42$ $P < .01$				$\chi^2 = 18.76$ $P > .05$				

<表 - 25 >는 '藝·體能 教科專擔制의 效果를 얻기 위한 特別室 施設 確保'에 대한 應答結果이다. 이를 全體적으로 볼때 '아주 그렇다'가 79%, '대체로 그렇다'가 16%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約 95%의 肯定的인 反應을 보였다. 이에 반해 否定的인 應答은 約 1.7%의 낮은 反應을 보여, 特別室과 施設이 충분히 確保되어야 藝·體

能 教科專擔制의 效果를 얻을 수 있다고 應答하였다.

集團 變因間의 差異를 x^2 의 檢證으로 알아본 結果, 男. 女 모두 約 95%에 該當하는 肯定的인 反應을 나타내었고, 5%의 水準에서 유의한 差異는 없었다.

經歷別에서는 31年 以上の 教師가 ‘아주 그렇다’에 85%, 21-30年의 教師가 80%, 1-10年의 教師가 77%, 11-22年의 教師가 70%의 順으로 높은 反應을 나타냈으나, 肯定的인 反應은 1-10年의 教師가 98%로 가장 높은 應答을 나타냈고, 5%의 水準에서 유의한 差異는 없었다.

年齡別에서는 31-40歲의 教師가 ‘아주 그렇다’에 88%, 51歲以上の 教師가 83%, 20-30의 教師가 77%, 41-50歲 教師가 70% 順으로 應答을 나타냈고, 31-40歲의 教師가 約 97%의 肯定的인 反應을 보이고 있으며, 1%의 水準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學歷別에서는 師範大學 출신교사가 ‘아주 그렇다’에 82%, 教育大學 출신교사가 81%, 師範學校 출신학교가 約 93%의 肯定的인 反應을 보였고, 5%의 水準에서 유의한 差異는 없었다.

4) 藝·體能 教科의 學年間 系列 把握

<表 - 26>은 ‘藝·體能 教科 專擔制를 實施한다면 專擔教科의 學年間 系列을 分明히 알고 授業에 임할 수 있을 것이다’에 대한 應答結果이다. 이를 全體적으로 볼때 ‘아주 그렇다’가 68%, 대체로 그렇다’가 26%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約 94%의 肯定的인 反應

〈表 - 26〉

藝. 體能 教科의 學年間 系列 把握

(單位 : %)

應答內容	性 別		經 歷 別				年 齡 別				學 歷 別				計
	男	女	1~10	11~20	21~30	31以上	20~30	31~40	41~50	51以上	師範學校	教育大學	師範大學	其他	
전혀 그렇지 않다		2 .5	2 1.8				2 1.9							2 3.7	2 .4
대체로 그렇지 않다	4 4.5			4 2.4			2 1.9	2 1.6				2 .6		2 3.7	4 .9
그저 그렇다	6 6.8	16 4.3	6 5.8	8 4.8	4 2.9	4 10.0	8 7.5	6 4.8	6 3.6	2 3.3	4 6.5	14 4.4	2 9.1	2 3.7	22 4.8
대체로 그렇다	22 25.0	98 26.5	32 28.1	40 24.1	40 29.0	8 20.0	34 32.1	26 21.0	44 26.2	16 26.7	20 32.3	88 27.5	2 9.1	10 18.5	120 26.2
아주 그렇다	56 63.6	254 68.6	74 64.9	114 68.7	94 68.1	28 70.0	60 56.6	90 72.6	118 70.2	42 70.0	38 61.3	216 67.5	18 81.8	38 70.4	310 67.7
계	88 19.2	370 80.8	114 24.9	166 36.2	138 30.1	40 8.7	106 23.1	124 27.1	168 36.7	60 13.1	62 13.5	320 69.9	22 4.8	54 11.8	458 100.0
χ^2 치 및 유의도	$\chi^2 = 18.53$ $P < .01$		$\chi^2 = 18.02$ $P > .05$				$\chi^2 = 18.38$ $P > .05$				$\chi^2 = 28.15$ $P < .01$				

을 보였다. 이에 반해 不定的인 面은 約 1.3%의 낮은 反應을 보이고 있으므로, 專擔 教科의 學年間 系列을 分明히 알고 授業을 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集團 變因間의 χ^2 의 檢證으로 알아 본 結果 男. 女 모두 約 94%에 該當하는 肯定的인 反應을 나타내었고, 1%의 水準에서 유의적인 差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經歷別에 있어서는 31年 以上の 教師가 ‘아주 그렇다’에 70% 11-20年의 教師가 69%, 21-30年의 教師가 61%, 1-10年의 教師가 65%의 順으로 應答을 했고, 20-30年의 教師가 約 97%의 肯

定的인 反應으로 가장 높은 應答을 나타냈으며, 5% 水準에서 유의한 差異는 없었다.

年齡別에서는 51 歲의 教師가 約 97%의 肯定的인 反應을, 41 - 50 歲의 教師가 96%의 順으로 높은 應答을 보였다. 이에 反해 不定的인 應答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으며, 經歷이 낮을수록 낮은 應答을 보이고 있으며, 5%의 水準에서 유의한 差異는 없었다.

學歷別에서는 師範大學 출신교사가 '아주 그렇다'에 82%, 其他 출신교사가 70%, 教育大學 출신교사가 68%, 師範學校 출신교사가 61%의 順으로 應答을 했고, 師範大學 출신교사가 91%의 가장 높은 應答을 나타내었다.

5) 藝·體能 教科의 教材研究 準備 및 活用度

< 表 - 27 > 藝·體能 教科의 教材研究 및 準備 및 活用度

(單位: %)

應答內容	性 別		經 歷 別				年 齡 別				學 歷 別				計
	男	女	1~10	11~20	21~30	31以上	20~30	31~40	41~50	51以上	師範學校	教育大學	師範大學	其他	
대체로 그렇지 않다	2 2.3	2 .5		2 1.2		2 5.0	2 1.9			2 3.3				4 7.4	4 .9
그저 그렇다	4 4.5	28 7.6	6 5.3	8 4.8	8 5.8	10 25.0	6 5.7	6 4.8	10 6.0	10 16.7	8 12.9	18 5.6		6 11.1	32 7.0
대체로 그렇지 않다	28 31.8	150 40.5	38 33.3	78 47.0	52 37.7	10 25.0	40 37.7	48 38.7	68 40.5	22 36.7	26 41.9	124 38.8	8 36.4	20 37.0	178 38.9
아주 그렇다	54 61.4	190 51.4	70 61.4	78 47.0	78 56.5	18 45.0	58 54.7	70 56.5	90 53.6	26 43.3	28 45.2	178 55.6	14 63.6	24 44.4	244 53.3
계	88 19.2	370 80.8	114 24.9	166 36.2	138 30.1	40 8.7	106 23.1	124 27.1	168 36.7	60 13.1	62 13.5	320 69.9	122 4.8	54 11.8	458 100.0
χ^2 치 및 유의도	$\chi^2 = 6.10$ $P > .05$		$\chi^2 = 39.84$ $P < .01$				$\chi^2 = 18.95$ $P < .05$				$\chi^2 = 39.29$ $P < .01$				

〈表 - 27〉은 ‘藝·體能 教科專擔制를 實施한다면 한 教科만을 指導하므로 教材研究 準備 및 活用이 容易할 것이다’에 대한 應答結果이다. 이를 全體的으로 볼때 ‘아주 그렇다’가 53%, ‘대체로 그렇다’가 39%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約 92%의 肯定的인 反應을 보였다. 이에 反해 否定的인 反應은 0.9%의 매우 낮은 反應을 보이고 있다.

集團 變因間의 差異를 χ^2 의 檢證으로 알아 본 結果 男·女 모두 約 92%에 該當하는 肯定的인 反應을 나타내었고, 5%의 水準에서 유의한 差異는 없었다.

經歷別에서는 1-10年의 教師가 ‘아주 그렇다’에 61%, 21-30年의 教師가 57%, 11-20年의 教師가 47%, 31年 以上の 教師가 45%의 順으로 應答하였고, 1-10年의 教師가 約 94%의 肯定的인 反應을 나타냈으며, 1%의 水準에서 유의적인 差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年齡別에서는 51歲 以上の 教師가 ‘아주 그렇다’에 43%의 應答을 보였고, 그 以下の 年齡에 속한 教師는 約 55%의 水準에서 거의 같은 應答이었으며, 31-40歲의 教師가 96%의 肯定的인 應答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5%의 水準에서 유의적인 差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學歷別에서는 師範大學 출신 教師가 約 100%의 肯定的인 應答으로 가장 높게 나타낸 反面, 其他 출신교사는 81%의 가장 낮은 應答을 보였으며, 1%의 水準에서 유의적인 差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要約 및 結論

본 연구의 目的은 '국민학교 예·체능 教科專擔制의 改善方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文獻研究와 設問調査 研究를 병행하였다.

자료의 結果 분석은 Spss 통계 Packdge Program의 X^2 검증법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의 結果를 얻었다. 이에 대한 要約 및 結論사항은 다음과 같다.

1. 要約

첫째, 教科專擔制는 교사의 授業負擔輕減, 教育專門性 提高, 역동적인 학습활동을 가능케 하는 제도로 實施의 필요성에 높은 반응(약 93%)을 보였다.

둘째, 教科專擔制를 필요로 하는 교과목은 주로 체육, 음악, 미술 등 예·체능 교과목에 한정되었고, 이 외에 자연, 실과도 實施의 필요성이 要請되었다. 이의 실시대상 학년은 상급학년인 4~6학년에서의 실시를 選好하고 있었는데, 잠정적으로 저학년까지 확대 실시의 필요성이 요청되었다.

셋째, 教科專擔制는 1960년초부터 實驗學校를 운영해 온 결과로 1992년부터 확대 실시케 되었다. 그간의 實驗學校 운영을 통해서 이 제도의 長·短點이 충분히 밝혀진 것으로 糾明되었다.

넷째, 教科專擔制의 성공적인 실시를 위하여 初等敎員 養成機關에 예·체능 교과 교육의 副 專攻制 導入과 동시에 교과 전담교사 연수 강화의 必要性이 요청되었다. 전담교사의 연수 강화는 教育大學에

해당교과의 교과 심화과정을 설치하여 이를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담교사의任用은 희망자 또는 指導適任者를 대상으로 우선 選拔任用하는 방법이 선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教育部는 '92 教育法 施行令 改正과 함께 5개년('92-'96)동안 연차적으로 12,733명의 教科 專擔教師를 採用 임용할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教科專擔制 실시의 필요성은 授業負擔의 輕感, 教科教育의 質的向上 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도 여실히 나타났다. 즉 設問에 응한 대부분의 初等教師가 예·체능교과 지도에 자신이 없다고 나타내었다. 이를 보면 教科指導에 자신감을 나타낸 교사는 겨우 체육 19%, 음악 21%, 미술 19% 수준에 머물고 있고, 그 외에는 자신이 없는 상태에서 지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섯째, 教科專擔制로 인한 學級擔任과 專擔教師간 별도의 갈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데 비하여, 교과담당 교사의 無學級擔當 그 자체는 교과전담교사 선호의 障礙要因이 되고 있음을 보였다.

일곱째, 예·체능교과 전담제 실시에 대한 教育的 効果에 대해서는 교사의 약 96%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教科·教材研究도 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었다.

여덟째, 教科專擔制 運營上에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教科專擔教師 配定은 원칙적으로 희망자, 指導能力 適格者 등이 우선 고려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學級擔任에 비해 불리한 조건들 때문에 교과전담교사 배치를 기피하는 현상이 없지 않다. 이로 인하여 본인의 의사와는 다른 新任教師, 轉入教師, 가장 젊은 교사, 증치교사 등 파행적으

로 運營되고 있는 예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結 論

첫째, 教科專擔制는 담임교사들의 授業負擔을 경감시키고, 교과의 指導 專門性を 보장할 수 있고, 역동적인 學習活動도 기대할 수 있는 제도로 공감하고 있다. 이 제도가 확대 실시된다면 初等敎員의 과도한 수업부담 경감과 職務滿足에도 크게 기여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教科專擔 교과가 체육, 음악, 미술 교과목에 한정되고 있으나, 교과지도상에 애로를 겪는 자연, 실과교과의 확대실시의 필요성도 없지 않다. 뿐만 아니라 실시 대상학년도 4-6학년에 한정되었으나, 저학년에서도 예·체능교과의 지도상 애로는 마찬가지로 일 것이라는 점에서 잠정적으로는 全 學年에 확대실시의 필요성이 요청된다.

셋째, 實質的인 教科專擔制의 실효를 위해서는 教育大學에 예·체능 교과 교육의 副 專攻制 導入과 담임교사에 비해 不利益이 예상되는 문제들을 충분히 檢討하여 교과전담 교사의 不利益이 초래되지 않는 制度化의 定着이 先行되어야 한다.

넷째, 현재의 擔任敎師 중심의 예·체능 教科指導는 實効性 있는 교과교육을 기대하기 어렵다. 때문에 教科專擔 敎師제를 확대 실시하여 해당 교과목의 敎育成果를 기대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教科專擔敎師 支援을 기피하는 주요 원인들이 밝혀진 이상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여 교사들로 하여금 選好할 수 있는 제도의 定着이 요구된다.

參 考 文 獻

教育部 「報道資料」, '92.

教育論斷, “國校 藝. 體能教科 專擔制” 週間教育, 1991.

官報, 第 12060 號, 1992.

김운태, 「教育心理學 辭典, 서울」: 倍英社, 1965)

김재복외 3人, “教科 專擔教授制의 投入 效果 研究,” 韓國教育開發院, 1978.

김종서, 「國民學校 專擔制에서 解決되어야할 問題點」, 教材教構, 1970

김진목, “初等教育에 있어서 藝. 體能教科 專擔教授制의 效果에 關한 研究”, 慶熙教育大學 「論文集」 第 24 輯, 1987.

성신여대 附屬國校, “教科 專擔制와 各 教科別 研究, “74年 研究報告書, 1974.

신윤철, “教育大學 制度의 改善에 關한 研究”, 教育評論 11月號, 1973.

영동국민학교, “國民學校 藝. 體能教科 專擔制 運營의 效率化 方案”, 1981.

오근진, “國民學校 教科 擔任制에 關한 研究, “高麗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請求論文, 1973.

오덕균, “國民學校 教科 擔任制에 關한 研究, “단국대학교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請求論文, 1989.

이신복, “教科 專擔制에 대한 研究, “「研究報告」 第1集 (서울特別市 教育研究院, 1969)

이창한, “國民學校 教科 專擔制에 관한 研究”, 단국대학교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請求論文, 1990.

장찬익외 6人, “國民學校 藝·體能 教科 專擔制에 관한 研究”, 서울 教育大學 「論文集」 第23輯, 1990.

전수복, “國民學校 教科 專擔教師에 관한 研究”, 단국대학교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請求論文, 1990.

韓國教育開發院, “教科 專擔教授制의 投入效果 研究”, 研究報告書 第10輯, 1978.

황은기, “國民學校 教育現場에 藝·體能教科 專擔이 學歷과 實力에 미치는 影響”, 서울시 現場教育研究論文, 1988.

吉本郎, 「須藤久辛小學校 教科擔任制 (第1卷)」 日本東京: 明治圖書, 1963

金子孫市, 下村哲夫, 「教育の現代化」 日本東京: 學陽書店, 1972.

松村謙, 「教頭教務主任等 研修事典」 日本東京: 文教書院, 1970.

佐藤慶, 「教科擔任制 にすう小學校 經營の革新」 日本東京: 明治圖書, 1966.

ABSTRACT

A Study on the Specialty Teacher System for Art/Atheletic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Hong, Soon Hye
Department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Hansung University

This study can be concluded as follows;

- 1) It is agreed that the specialty teacher system reduces class-teachers' burden, ensures the specialized education and promote dynamic learning activities. It is conceived, therefore, that expanding this system will greatly reduce elementary teachers' burdens and thereby increase their satisfaction with the teaching job.
- 2) The specialty teacher system which is currently limited to the subjects of athletics, music and fine-art should be extended to such subjects requiring more specialized guidance and Natural World and Practices. Furthermore, the system which is now implemented only for higher-grade (4 - 6th grade) students should be expanded to cover the entire grades, because the guidance of art and athletics for the lower-grade students may also have similiar difficulties.
- 3) For an effective and substancial specialty teacher system, art or atheletics minor system should be introduced in the curriculum of the teachers' colleges, considering various problems involving the system. In particular, the disadvantages which specialty teachers minored in art or atheletics may sustain should be fully remedied.
- 4) The efficient education may not as well be expected of the current class-teacher-based system. In this vein, the expansion of the specialty teacher

system through all the subjects should be seriously considered.

- 5) As long as major causes for avoiding the specialty teachers have been identified, they should be corrected institutionally so that would-be teachers can prefer the specialty teacher.

설문지

교육에 전념하고 계신 선생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본 설문지는 예. 체능교과 전담제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
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성의껏 응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설문지는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1991. 12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육행정 전공

홍순혜 올림

1. 인적사항

* 성별 : (남 여)	* 교육경력 : (총 년)
* 연령 : (만 세)	* 학력 : 사범대학 () 교육대학 () 사범대학 () 기타 ()

2. 설문조사

응답요령 : 설문내용을 읽으시고, 예. 체능교과 전담제에 대하여 선
생님의 생각과 같은 정도에 따라

* 아주 그렇다	' 5 ' 에
* 대체로 그렇다	' 4 ' 에
* 그저 그렇다	' 3 ' 에
* 대체로 그렇지 않다	' 2 ' 에
* 매우 그렇지 않다	' 1 ' 에

' 0 ' 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문항	설문내용	아주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담제의 필요성	1 *예. 체능교과 전담제는 고학년교사의 수업부담 경감을 위해서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5	4	3	2	1
	2 *예. 체능 교과전담제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5	4	3	2	1
	3 *예. 체능교과 전담제는 담임교사와 교과 담당 교사간의 갈등이 생길 염려가 있으므로 실시하지 않는 것이 좋다	5	4	3	2	1
	4 *예. 체능 교과 담당 교사는 소속 불분명으로 인하여 기피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5	4	3	2	1
	5 *담임이 아닌 다른 교사가 수업을 담당한다면 생활지도의 애로점이 있을 것이다.	5	4	3	2	1
전담제 운영의 실태	6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의 장애 요인은 과도한 수업분량이다.	5	4	3	2	1
	7 *현재 본교의 상태로 보아 체육, 음악, 미술과의 전담제는 가능하다고 본다.	5	4	3	2	1
	다음 교과는 어느정도 지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이 있다	보통이다	자신이 없다		
	8 *체육					
9 *음악						
10 *미술						

전담교사 양성제도	11	*예. 체능 교과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교사의 양성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5	4	3	2	1
	12	*예. 체능 교과 전담교사는 전문화의 자격증 제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5	4	3	2	1
	13	*교대등 초등교원 양성기관에서 예. 체능 교과의 부전공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5	4	3	2	1
적용범위	14	*예. 체능지도 대상학년은 4학년 이상이 바람직하다.	5	4	3	2	1
	15	*지도해야할 교과목의 종류는 체육, 음악, 미술 3교과가 적당하다.	5	4	3	2	1
전담제의 기대효과	16	*예. 체능 교과 전담제를 실시함으로써 교육과정배당 시간은 빠짐없이 이행될 것이다.	5	4	3	2	1
	17	*예. 체능 교과 전담제를 한다면 수업의 밀도를 높이는 데 효과가 클 것이다.	5	4	3	2	1
	18	*예. 체능 교과 전담제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특별실과 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5	4	3	2	1
	19	*담당 교과의 학년간 계열을 분명히 알고 수업에 임할 수 있을 것이다.	5	4	3	2	1
	20	*예. 체능 교과의 교재 연구준비를 위한 노력이 경감될 것이다.	5	4	3	2	1

수고하셨습니다.